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지시성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김 은 비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지시성 연구

지도교수 전 영 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김 은 비

김은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장윤희 (인)

부위원장 박진호 (인)

위 원 전영철 (인)

〈한국어 초록〉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지시성 연구

김 은 비

본고는 분포와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용법을 관찰하여, 그 지시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어떤’과 ‘한’ 명사구가 일관적으로 비한정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대체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특정적 용법만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불특정적 용례는 이에 대한 반례로서 제시될 뿐, 그것을 하나의 용법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과 ‘한’의 지시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한정성과 특정성, 불특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두 어휘가 비한정 표지라는 것을 검증하였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정적, 불특정적 용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용법이 어떤 문법적 선호와 제약을 지니는지, 그리고 주요 의미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장에서는 한정성과 특정성 개념을 정의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판별 기준이 다르기에,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 적용할 이론을 선택하였다. 한정성은 확인가능성 이론을 따라, 지시체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인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특정성 또한 정체 식별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청자가 내부에 지시체의 표상을 지닌 경우로 규정하였다.

3장에서는 ‘어떤’과 ‘한’이 비한정 표지임을 증명하여, 그 비한정성을 밝혔다. 비한정 표지는 명사구에 비한정성을 부여하고, 특칭 명사류와의 결합이 제한되며, 한정 표지와의 연쇄가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어떤’과 ‘한’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며, 한정성 효과와 특수 용례 확인을 통한 추가 검증에서도 일관적으로 비한정성을 보였다.

이후 4-5장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특정적/불특정적 용법의 분포와 의미 기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분포에서는 조사와 지시관형사의 제약이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의 경우, 특정적 용법은 초점표지 ‘이/가’와 대조초점의 ‘은/는’이 결합할 수 있었다. 반면 불특정적 용법에서는 초점표지 ‘이/가’만 결합하였다. 다음으로 지시관형사의 결합에서, 특정적 용법은 ‘이, 그, 저’가 결합한 형태가 모두 나타났으며, 해당 지시관형사들의 지시성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불특정적 용법에서는, ‘그’만 선행할 수 있었다. 즉 불특정적 용법은 특정적 용법에 비해 더 강한 분포 제약을 지녔다.

더불어, 각 용법의 주요 의미 기능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특정적 용법에는 화자의 지시 대상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을 숨기려는 화자의 의도가 크게 개입하였다. 이와 달리 불특정적 용법은 이러한 의도를 보이지 않으며, 속성이나 유형에 대한 지시를 담당하였다.

한편,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 사이의 차이도 나타났다. '한'은 ‘어떤’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불특정적 용법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주요어 : 어떤, 한, 비한정 표지, 비한정성, 특정성, 불특정성

학 번 : 2021-23167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 4
1.3. 선행 연구 ····· 7
1.4. 논의의 구성 ····· 12

2. 명사구의 지시적 정보 ····· 13
2.1. 한정성과 비한정성 ····· 14
2.2. 특정성과 불특정성 ····· 17

3. 비한정 표지로서의 ‘어떤’과 ‘한’ ····· 19
3.1. 비한정 표지의 개념과 특성 ····· 22
3.2. 비한정 표지 ‘어떤’의 설정 ····· 26
3.2. 비한정 표지 ‘한’의 설정 ····· 31

4.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특정성 ····· 37
4.1. 특정적 ‘어떤’과 ‘한’의 분포 제약 ····· 38
4.1.1. 조사 결합 제약 ····· 38
4.1.2. 지시관형사 결합 제약 ····· 42
4.2. 특정적 ‘어떤’과 ‘한’의 의미 기능 ····· 44
4.2.1. 의도성 ····· 46
4.2.2. 경험의 서술 ····· 48

5.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불특정성 ····· 51
5.1. 불특정적 ‘어떤’과 ‘한’의 분포 제약 ····· 52
5.1.1. 조사 결합 제약 ····· 52
5.1.2. 지시관형사 결합 제약 ····· 54
5.2. 불특정적 ‘어떤’과 ‘한’의 의미 기능 ····· 56
5.2.1. 비의도성 ····· 56
5.2.2. 유형·속성의 서술 ····· 59

6. 결론 ····· 63

참고문헌 ····· 65
Abstract ····· 70

표 목 차

[표 1] ≪어린왕자(1943)≫ 내 부정관사 ‘a’ 번역어 빈도 ····· 21
[표 2] ‘어떤’과 ‘한’의 사전 기술 ····· 35
[표 3] ‘일상 대화 말뭉치’의 특정적/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 37
[표 4] ‘구어말뭉치’의 특정적/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 38
[표 5] ‘일상 대화 말뭉치’의 조사 별 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 40
[표 6] ‘구어 말뭉치’의 조사 별 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 41
[표 7] 비한정적 명사구의 의미 기능 구분 ····· 45
[표 8] ‘일상 대화 말뭉치’의 조사 별 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 53
[표 9] ‘구어 말뭉치’의 조사 별 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 53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용례를 통해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이 나타내는 지시적 정보의 양상을 두루 살펴보고, 그 용법을 더욱 세분하여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본래 각각 의문관형사와 수관형사였으나, 그 의미가 확장되어 비한정 표지로 자주 쓰이면서 지시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어떤’과 ‘한’이 비한정 표지로 쓰인 용례는 구어와 문어 모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 ㄱ. 너는 어떤 책을 좋아하니?
ㄴ. 사과 한 개랑 귤 두 개를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ㄷ. 어떤 친구가 5월에 결혼을 할 것 같아.
ㄹ.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더라.

(1ㄱ)에서 ‘어떤’은 의문관형사로, 청자가 좋아하는 책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1ㄴ)에서는 ‘한’이 수관형사로 쓰여 사과의 개수를 나타낸다, 반면 (1ㄷ,ㄹ)은 ‘어떤’과 ‘한’이 비한정 표지로 쓰인 경우이다. 이를 통해 청자는 결혼을 하는 친구나 다가온 사람의 존재는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명사구에 연결되는 지시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표상할 수 없다.

이렇듯 한국어에서 ‘어떤’과 ‘한’이 비한정 표지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한정성과 별개로, 화자 자신이 지시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느냐는 특정성의 판단이 문제가 되었다. 한 예로 아래의 (2)에서는, ‘어떤 음식’이라는 명사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특정성이 다르게 분석된다.

(2) ㄱ. 나는 어제 어떤 음식을 먹었다.
ㄴ.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거부한다.

(3) ㄱ.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나를 불렀다.
ㄴ. 나는 일요일에 한 남자를 만난다.

먼저 특정성을 '화자가 마음속에 특정 개체를 지시체로 두고 있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정의하고 (2)를 분석해보자. 이 경우 (2ㄱ)은 특정적이다. 화자는 자신이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에, 이를 다시 마음속에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음식을 지시체로 두고 있으므로 특정적이라 볼 수 있다. 반면 (2ㄴ)은 맥락에 따라 불특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1] 만약 아이들마다 거부하는 음식이 다르다면, 화자는 특정 개체를 지시체로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아이들이 음식 중 무언가를 거부한다.'라는 일반적인 서술에 가깝다. (3)의 '한' 명사구 또한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3ㄱ)의 경우, 상황 내에서 화자가 남자를 직접 볼 수 있기에, 특정한 지시체로서 '남자'를 직접적으로 표상할 수 있어 특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3ㄴ)의 '한 남자'는 (2ㄴ)처럼 특정적, 불특정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우선 화자가 자신이 일요일에 만날 남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이 경우는 특정적으로 해석된다. 반면 처음으로 선을 보는 자리여서 상대가 남자인 것만 알 뿐,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때는 불특정적인 해석이 된다.

이처럼 '어떤'과 '한'의 지시성은 맥락에 의존하는 면이 있어 이들을 특정성 또는 불특정성 표지 중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니는 특정성과 불특정성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들에서는 특정적 용법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에, 불특정적 용례는 이에 대한 반례로서 제시되었을 뿐, 그것을 하나의 용법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에서 나

1) 맥락에 따라 특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당근'을 거부한다는 명제를 화자가 사전에 받아들였다면, 해당 문장 발화 시 '어떤 음식'에는 특정한 지시체로 '당근'을 표상하였을 것이다.

타나는 특정성과 불특정성을 각각 하나의 지시성 유형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특성과 의미 기능의 차이를 탐색하려고 한다. 우선 지시체의 인지적 지위는 맥락뿐만 아니라 문법 형식을 통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각 유형에는 서로 다른 문법적 요소가 선호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같은 표지를 사용하기에, 그 발화 의도가 의미 기능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고려하여,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① 각 용법 사이에 서로 다른 문법적 선호나 제약이 발생하는가?
② 각 용법의 주요 의미 기능은 무엇인가?
③ 비한정 표지로서 ‘어떤’과 ‘한’의 차이는 무엇인가?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고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원형이 되는 의문사 '어떤'과 수관형사 '한'은 의미적 연관성만을 주로 다룰 뿐, 적극적인 용례 제시나 용법 분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의 경우는 이 외에도 꽤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수량사구가 한국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채완(1983), 김영희(2006), 윤희수, 이선웅(2018)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일반 수량사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4) 수량사구의 유형
ㄱ. 수관형사+명사 예 한 꽃, 두 꽃
ㄴ. 수관형사+분류사+명사 예 한 송이 꽃, 두 송이 꽃
ㄷ. 명사+수관형사+분류사 예 꽃 한 송이, 꽃 두 송이
ㄹ. 명사+수사 예 꽃 하나, 꽃 둘

그런데 (4ㄱ-ㄹ)의 유형이 모두 동일한 지시적 정보를 지니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 꽃'뿐만 아니라 '꽃 하나'나 '꽃 한 송이'에서도 비한정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입장은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명사 전후로 수량 수식어의 위치가 다른 경우, Greenbeg(1978:300)[2]나 채완(1983:24-25)에서는 그 지시적 의미에 차이가 날 것이라 보았으나, 김영희(2006:159)는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3] 기본적으로는 동의 관계일 것이라 주장하였다.

본고 또한 모든 유형을 비한정 표지 '한' 명사구 범주에 넣어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면,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유형이 동의 관계에 있다는 증명을 하거나, 각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드

2) (4ㄹ)처럼 명사가 양화 표현에 선행하는 경우, 해당 수량사구는 일반적으로 비한정성을 띤다고 보았다.
3) 양화 표현이 수사로서 특칭, 투명 양화 표현인 경우는 구조적 중의성으로 인해 지시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러나는 지시성이 다르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별개의 연구로 다루어야 할 만큼 큰 문제고, 본고에서는 '어떤' 또한 함께 다루는 만큼 자세히 조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 대상을 (4ㄱ)과 같은 '한+N' 구조만으로 한정하고,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두 명사구 간 비교·대조를 위해서는 유사한 구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어떤' 명사구는 분류사를 수식하지 않고, 피수식되는 명사에 후행하지도 않기에 가장 비슷한 구조로 '한+N'을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대상은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수식을 받는 '어떤+N', '한+N'으로 좁혀진다.

더불어 지시성 연구인만큼, 맥락이 잘 드러나는 분석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1943)≫의 영어 번역본 1종과, 한국어 번역본 4종을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용례를 구축하였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생성한 문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경향성을 분석, 가정하고 말뭉치 통계를 통해 그것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말뭉치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일상 대화 말뭉치 2020(버전1.3)'와 '구어말뭉치(버전1.2)'를 사용하였다.

우선 영어와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 장르의 특성상 그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지시하는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지시적 정보가 관사 체계를 통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영어에 한국어 번역을 대응시킴으로써 해당 한국어 표현이 지닌 지시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정관사 'a'는 대표적인 비한정 표지로서 그 번역어가 '어떤'이나 '한'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추론이 정확하다면 두 어휘의 비한정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상 대화 말뭉치'도 대화 참여자와 주제, 배경 상황이 제시되므로 지시성 판별이 용이하여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였으며, '구어말뭉치'는 이에 비해 전후 맥락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좀 더 다양한 장르의 말하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따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말뭉치 분석에서는, ‘어떤’과 ‘한’의 등장 환경을 되도록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선 논의대로 ‘한’ 구문의 구성을 ‘한+N’으로 한정하였고, 후행하는 명사 또한 단수 일반명사로 한정하였다. ‘어떤’ 명사구는 ‘한’처럼 분류사가 후행하거나 피수식 대상이 선행하는 경우가 없고,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이 결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지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 명사 중에서는, 박병선(2004)과 주위(2018)를 참고하여 ‘사람’을 선택하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사람’은 ‘어떤’과의 공기 빈도가 매우 높은 일반 명사로 관찰되고 있으며, ‘한’ 명사구에서도 ‘사람’은 일반명사와 분류사 모두로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례가 적게 나타나거나, ‘어떤’과 ‘한’ 명사구 사이의 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4] 우려가 적었다.

결론적으로, 말뭉치 분석에서는 ‘어떤 사람’과 ‘한 사람’을 포함한 문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상 대화 말뭉치’에서는 문장 수가 적어 각 명사구마다 50문장씩을 랜덤 추출하였고, ‘구어말뭉치’에서는 500문장씩을 랜덤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각 문장 내 명사구의 특정성/불특정성은, 2장의 특정성 정의와 제시된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자 본인이 판정하고 기록하였다.

4) 박병선(2004)과 주위(2018)에서도 지적하였듯, 각 관형사마다 자주 결합하는 명사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과 ‘한’ 중 한 명사구에서만 자주 나타나는 명사를 대상으로 채택할 경우, 연구 결과가 편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3. 선행 연구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첫째는 비한정 표지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어에서 비한정성을 지니는 표지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과 ‘한’이 해당 부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주요 연구 질문이 된다. 즉 ‘어떤’과 ‘한’의 비한정성을 논하게 된다. 둘째는 특정성 연구이다. 우선 ‘어떤’과 ‘한’을 우선 비한정 표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특정성/불특정성을 분석한다. 본고의 논의는 후자에 가깝고, 비한정 표지 문제는 따로 3장에서 다룰 예정이기에 이 절에서는 ‘어떤’과 ‘한’의 특정성/불특정성 관련 논의들만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어떤’과 ‘한’의 지시적 정보를 주제로 내세운 연구로는 유일하게 염재일(2007)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어떤’과 ‘한’을 특정성 표지로 간주하고, 두 어휘의 차이를 보고자 했다. 이들이 특정성을 지니는 이유는, 그 쓰임 자체가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 대상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그 유일한 대상을 결정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정보는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정도의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5) ㄱ. 철수는 어제 <u>(어떤/한) 의사</u>를 만났다.
ㄴ. 철수는 어제 <u>의사</u>를 만났다. (염재일, 2007:27)

염재일(2007)은 (5ㄱ)에서 화자가 특정한 의사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반면 (5ㄴ)은 특정한 의사가 설정될 필요가 없어, 화용적인 요소가 따로 없으면 특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어떤’과 ‘한’의 여러 용법을 제시하면서, 특정성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우선 ‘어떤’은 서술문에서 존재양화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도입되는 변수로 특성(property)나 개체(individual)를 지니

는데, 특정성을 지니는 ‘어떤’은 특성이 아니라 개체를 지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문문의 ‘어떤’은 특성을 가리키므로 특정성 표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의문 표현과 지시 표현으로서의 ‘어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또한 마찬가지로, 순수 수량사구와 특정성 표지로서의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 작은 숫자는 일반명사 앞에 옴으로써,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는 개체화(individuation) 때문이다. 즉 별개의 개체가 됨으로써 특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기에, 보통 숫자가 작을수록 특정성이 커지게 된다. ‘한’의 경우는 가장 작은 수이기에, 일반명사가 바로 결합하는 형태의 명사구에서는 언제나 비한정 명사구를 형성하여 늘 특정성을 지니게 된다.[5] 그러나 단위명사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수량을 나타내는 용법이라면 불특정성을 지니게 된다.[6] 따라서 ‘한’의 특정성은 단위명사의 개입 여부와 큰 관련이 있으며, 수량 표현 보다는 지시 표현으로써의 쓰임이 더 강조된다고 주장한다.

이후에는 비한정 표현으로써 자주 교체되어 쓰이기도 하는 ‘어떤’과 ‘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술하는데, 우선 공통점은 두 표현 모두 믿음 상황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특정성은 그 대상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 화자 지향적이어서 화자의 믿음과 관련이 있고, ‘어떤’은 화자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다.

(6) ㄱ. <u>어떤 재미있는 책</u>이 있는 것은 아니다.
ㄴ. ??<u>한 재미있는 책</u>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염재일,2007:37)

염재일(2007)의 설명에 따르면, (6ㄱ)은 청자나 다른 누군가가 재미있는 책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6ㄴ)은 화자가 그 존재를 믿는 것이다. 따라서 (6ㄴ)은 이미 책의 존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모순과 같다고 본다. 즉, ‘어떤’은 추상적인 어떤 특성을

5) 이는 ‘두’, ‘세’ 등과 같은 다른 수량사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6) 이에 대해서는 따로 예시를 들고 있지 않으나, 아래 문장의 경우 ㄱ보다는 ㄴ이 상대적으로 특정한 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예 ㄱ. 내일 꽃 한 송이를 사서 병원에 가자.
ㄴ. 내일 한 꽃을 사서 병원에 가자.

통하여 개체를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그 특성을 가진 개체의 존재 자체를 꼭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성 명사구로 존재 부정을 하는 경우 해당 특성은 화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한'은 화자 지향적이므로 화자가 그 존재를 가정하고 있어 화자 자신이 존재를 부정한다면 자기모순이 되어 부정이 불가하다.

또한 사용 시 '어떤'은 그 배경에 많은 대체항을 가정하게 되고, '한'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먼저 '어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닌 개체에 관한 것이기에 그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개체들의 존재를 항상 가정하고 있다. 반면 '한'과 같은 수량 표현은 척도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개체가 있다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한'을 사용하면 그것이 전부이며 다른 개체는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개체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자면, 염재일(2007)은 '어떤'과 '한' 모두를 특정성 표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두 표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포나 의미 차이는 본래의 의문사적, 수량사적 쓰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염재일(2007) 외에 '어떤'과 '한'을 특정성 표지로 본 논의로, 김대빈(1992), 이정민(1922), 한정한(2017)을 들 수 있다. 우선 김대빈(1992:23-24, 1994:357)에서는 터키어나 핀란드어에서 명사구의 특정성 해석에 대격표시가 관여한다는 점을 들어[7], 비한정적-특정적 명사구에 대격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이런 현상이 한국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8] 이후 Enç(1991:18)에서 (a) certain을 특정성 표지로 제시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 한국어 대응어로 '어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특정성 표지로 규정하며, 그 근거로 특정성 표지인 목적격 표지와 공기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

7) 이 부분은 Enç(1991)의 논의를 따른다.

8) 염재일(2007:27)에서는 이를 비판한다. 우선 특정성/불특정성은 담화 맥락에 의해 유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불특정성 명사구도 화맥의 도움을 통해 특정성 명사구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목적격 표지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항상 불특정적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을 불특정성 표지라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경험적으로 여러 반례를 찾을 수 있어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이정민(1992:412-414)에서는 ‘어떤’ 명사구를 비한정 명사구로 보고 있으며, 인지된 대상을 가리키므로 그 영향권에 관계없이 특정적이라고 주장한다.[9] 즉, ‘어떤’을 특정성 표지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한’은 수량사로서의 의미가 아닐 때에는 ‘어떤’과 비슷한 비한정성을 지니며, 이 경우 결합할 수 있는 명사에 큰 제약이 없고, ‘한’과 명사 사이에 휴지가 개입한다고 보았다. 수량사와 명사가 결합한 구성은 수가 강조되는 해석이 아닌 이상 특정적이므로, ‘한’ 또한 특정성 표지로 보았다.

한정한(2017:75)은 한국어의 부정(不定) 표현을 특정성 유무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만 이름을 모르거나 알 필요가 없는 특정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것을 나타내는 불특정 부정이다. 따라서 불특정부정은 지시적 실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화/청자 모두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정보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과 같이 의문관형사나 수관형사가 비한정 표지로 쓰이는 경우에는, 보통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특정 부정이 된다고 보았다. 즉, ‘어떤’과 ‘한’을 특정성 표지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불특정적으로 쓰인 반례들이 있기에, 특정적 표지로 볼 수 없다는 반박 또한 제시되었다. 전영철(2005:729-731, 2013:62-66)에서는 ‘어떤’을 특정성 표지로 바라본 김대빈(1992)의 논의에 대해, 한국어의 목적격 표지는 특정성 표지가 아니기에 이와 공기하는 ‘어떤’이 특정성을 지닌다는 주장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대격 표시가 없어도 비문법적이지 않고, 맥락상 불특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례가 존재하기에[10] ‘어떤’을 특정성 표지로 보지 않는다. 즉 ‘어떤’은 다의적이며, 특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중의적이어서 오히려 ‘some’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한편

9) 이정민(1992:413)에서는 논증을 위한 예시로 ‘모두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문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전영철(2013:65-66)에 따르면 반론의 여지가 있다. 이 문장은 중의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어떤 여자’는 특정적일 수도, 불특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여자’가 영희라는 한 여성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면 이는 특정적이지만,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씩은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이라면 불특정적일 것이다.

10) ㉠ 백화점에 가게 되면 어떤 물건들을 충동구매 하기도 하지요. (전영철,2013:64) 여기서는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매하기도 한다는 해석이 더욱 자연스럽기에, 불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은 부정칭 관형사로 처리되며, ‘어떤’과 마찬가지로 특정적/불특정적 쓰임을 모두 보이기에 특정성 표지로 사용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양명희(2005)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반례들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김천학·안혜정(2021)은 ‘한’이 그 지시성으로 인해 지시관형사로도 활발히 쓰인다고 보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비한정적이고, 확인 가능(identifiable) 여부에 따라 특정적 또는 불특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또한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그 해석은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어떤’이나 ‘한’을 특정성 표지로 규정하는 시도는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불특정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용례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어떤’과 ‘한’을 특정성 또는 불특정성 표지로 따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비한정 표지로서, 용법에 따라 특정성 또는 불특정성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4. 논의 구성

본고는 우선 2장에서 명사구의 지시적 정보로서 한정성과 특정성 개념에 대해 다룬다. 그 설명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여러 논의를 돌아보고 이를 종합하여 본고에 적용할 정의와 기준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후 3장에서는 '어떤'과 '한'을 비한정 표지로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할 것이다. 비한정 표지의 개념과 문법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떤'과 '한' 명사구의 비한정성을 검증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부류 내에서 '어떤'과 '한'을 비교·대조할 수 있으며, 각각의 분포와 의미 기술 등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후 4-5장에서는 2-3장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과 '한' 명사구에서 나타나는 특정성과 불특정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4장에서는 특정적 용법, 5장에서는 불특정적 용법에 대해 다룬다. 용법에 따라 분포적 특성과 의미 기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각각을 절로 설정하였다. 먼저 분포적 특성으로는 명사구와 직접 결합하는 조사와 지시관형사에 주목하여, 용법에 따른 결합 제약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의미 기능에는 화자가 해당 명사구를 사용하는 의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반으로 그 차이를 서술한다.

6장은 결론으로, 서론의 연구 질문을 따라가며 앞의 논의를 정리한다.

2. 명사구의 지시적 정보

사회성과 경제성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말을 할 때 그 속에 나타나는 정보가 청자에게 알려진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발화하게 된다. 만약 주어진 정보가 적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발화한다면 청자는 발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정보임에도 다시 설명하려 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이고 지루한 발화가 될 것이다. 즉, 알려진 정보와 새로 도입된 정보가 구분되어야 적절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듯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는 문장 속에 구조화되어 나타난다.[11] 그 방식은 다양한데, 이미 주어진 정보는 되도록 문두로 배치하는 등 어순을 조정할 수도 있고, 전영철(2002), 서중운(2022)에서 지적하였듯 음운론적 요소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청자가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물론 때로는 별다른 표지 없이 담화의 상황 맥락이나 배경 지식 등을 통해 이것이 자연스럽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특정 문법 형식이 정보 구조를 추론하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다음에 제시된 문장에서는, 지시된 '고양이'가 화자와 청자 내부에 표상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문법적 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7) 내가 어제 <u>한 고양이</u>를 봤는데, <u>그 고양이</u> 진짜 귀엽더라.

(7)에서 '한 고양이'는 화자만 알고 있는 지시체로, 이 표현을 통해 일반적으로 청자는 '고양이' 유형에 속하는 하나의 개체를 상정하게 될 것이다. 이후 화자가 해당 고양이를 본 경험을 서술하였기에, 이 '고양이'에는 화자가 그것을 어제 보았다는 정보가 추가된다. 결국 후속하는 절에서는 화자와 청자 모두 특정한 고양이를 내부에 이미 표상하고 있기에, '그 고양이'라는 조응 표현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이처럼 지시사 중 '그' 계열은 선·후행하는 문맥 안에서 조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지이기에(장석

11) Hallliday(1967)에서 처음 제시된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의 정의이기도 하다.

진,1985:95), (7)의 ‘고양이’처럼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공유된 정보를 나타내는 기능을 자주 수행한다. 이처럼, 본고의 연구 또한 ‘어떤’과 ‘한’이라는 문법적 형식이 화·청자가 지니는 지시적 정보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명사구의 지시적 정보와 관련하여 한정성, 특정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정보구조 특성상 담화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하거니와, 직관에 의존하는 면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마다 한정성, 특정성의 정의와 그 판단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이 절에서는 한정성과 특정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따를 개념과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2.1. 한정성과 비한정성

한정성은 명사구의 지시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언어 보편적인 개념이다. 영어에서는 정관사(definite article) ‘the’와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 ‘a’를 통해 한정/비한정 명사구의 명시적인 구분이 가능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한정성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맨명사구가 가장 일반적인 명사구 형태이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지시사나 수사 또한 그 사용이 필수적이지는 않아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12)]

한정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정관사 ‘the’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지시와 관련하여 Russell(1905)이 그 시작점이 되었다. 그는 기술 이론(Theory of Description)에서, 지시 대상이 조건에 맞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체여야 한정 표현 ‘the’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13)] 다만 이 가설은 단수 가산 명사에만 적용되고, 절대적인 유일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서중운,2022:39) Donnellan(1966)은 Russell(1905)에 대해, 그가 한정 기술구(Definite description)의 속성적 사용(Attributive

12) 정재현(1996), 민경모(2005), 유현경,안예리,양수향(2007) 등 관사 언어와 한국어 번역을 대응시키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이다.
13) gundel et al.(1993)에서 설정한 ‘the’의 한정성 위계와 유사하다.

use)과 지시적 사용(Referential use)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한정 기술구는 맥락에 상관없이 언제나 속성적으로 사용되는 아니라, 그 내용이 참이 아니더라도 맥락에 따라 지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며 '저 학생은 매우 예쁘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인 경우에도 한정 기술구는 그 사람을 지시할 수 있다.

앞선 논의가 지시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한정성을 논한 것이라면, 이후의 친숙성(familiarity) 논의는 화용론적 측면에 가깝다. 이 이론은 Christopherson(1939)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여기서 친숙성이란, 이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기억을 명사의 의미와 연결하여 하나의 한정적 개체를 추론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한정 표현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화자, 청자 모두에게 친숙한 것이어야만 한다. 친숙성 논의는 후에 Karttunen(1976), Heim(1982)로 이어졌다. Karttunen(1976)에서는 담화 지시체(discourse referent)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처음에 도입되는 비한정 명사구는 담화 상에서 지시물을 정립하게 되고, 후에 등장하는 한정 명사구는 이를 통해 이미 정립된 지시물과 공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운영,1994:5) 즉, 실제 지시물이 없더라도 한정 명사구가 쓰일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Heim(1982)은 이러한 담화 지시체 개념을 수용하여, 비한정 명사구는 새로운 정보, 한정 명사구는 이미 저장된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친숙성 이론은 현재도 한정성과 정보구조의 관계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다. 대표적으로 Prince(1981)는 정보구조의 구정보-신정보 개념을 주어진 것(Given)과 새로운 것(New)로 구분하여, 구정보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주어짐성(Giveness)을 제시한다. 첫째는 예측가능성/복원가능성(predictability/recoverability)으로, 화자는 청자가 어떤 언어 항목이 문장 내에서 특정한 자리에 나타나리라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둘째는 현저성(saliency)으로, 화자는 청자가 발화를 듣고 의식 속에 특정한 개체를 도입할 것이라고 가정한다.[14] 마지막으로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은,

14) 즉 청자가 화자가 의도한 지시물의 정체를 판별(identify)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Chafe(1994)가 제시한 한정성의 정의이기도 하다.

청자가 특정한 항목을 알거나, 가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Prince(1981)는 이 중 '공유된 지식' 개념을 받아들이고, 세 주어짐성을 '포괄하여 가정된 친숙성(assumed familiarity)'로 명명하였다. 이후 가정된 친숙성은 공유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 한정성 논의의 기반이 되었으며, Lyons(1999)는 이를 한정성의 주요 속성으로 서술하기도 했다.[15)]

현재는 한정성 정의에서 확인가능성(Identifiability) 이론이 그 기준으로 자주 사용된다. Chafe(1994), Lambrecht(1994), Lyons(1999) 등이 이를 지지한다. 확인 가능성이란, 청자가 대상[16)]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보통 정관사가 사용되면 청자가 한정 표현의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부정관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화자는 확인가능성을 판단할 때에 대화 상황이나 문맥, 조응, 배경지식 등 다양한 대화 외적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확인가능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자가 한정 표현과 관련된 대상들 중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이다.(서중운,2022:43) 친숙성은 확인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단서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친숙성 이론도 확인가능성 이론에 포함된다.(Lyons,1999:13)

이처럼 그간 한정성을 규정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들을 간략하게 추려보았다. 본고에서는 이 중 한정성 논의를 위해 '확인가능성' 이론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포괄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숙성 이론에서 한정성을 파악하는 기준인 친숙함은 확인가능성 이론에서는 청자의 확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한정성 파악에 언어 외적인 요소들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

15) 이에 따라 한정성은 현대에도 일반적으로 '명사구의 지시대상이 무엇인지 청자가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다고 화자에 의해서 가정되는 속성'으로 정의되고는 한다. (최정진,2016:134)

16)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맥락이나 인지에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성의 특성상, 많은 이론에서 화용론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확인가능성 이론 또한 조응, 배경지식, 대화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 관사 언어처럼 한정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언어 연구에서는, 한정성 파악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 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설정한 한정성의 정의는 (8)과 같다.

(8) 한정성의 정의
: 어떠한 명사구의 한정성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청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맥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자가 믿을 때 성립한다.

2.2. 특정성과 불특정성

명사구의 지시적 정보를 설명할 때, 한정성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특정성이다. 특정성은 화자의 의도, 인지와 관련이 있다. 즉 청자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정성과 차이가 있다.[17] 이와 관련하여 전영철(2005:721)에서는 특정성과 한정성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정 명사구는 화자가 그 지시체로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고, 한정 명사구는 청자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전통적으로도 특정성은 어떤 기술(description)을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화자 자신이 그 기술을 만족시키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마음속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박철우,2003:25) 이에 따라, 영어에서는 주로 비한정적인 부정관사 'a'의 쓰임과 관련하여 많은 특정성 연구가 이루어졌다.[18] 예를 들어, 'I want a book.'과 같은 간단한 문장에서 'a book'는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 따로 있느냐에 따라 특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불특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중의성이 발생한다.

---

17) 청자가 명사구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유일한 대상을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이 한정성과 구분된다. (박철우,2003:26)

18) 특정성은 비한정 명사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한정 명사구가 청자의 앎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대상, 즉 한정적인 대상이라면 특정적이기도 하기에 독립적인 논의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특정적/불특정적 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Karttunen(1976)은, 비한정 명사구가 긍정 단문(simple affirmative sentence)에 나타날 때 보통 특정적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정성이 동사의 종류 등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관찰하였다.

이후 부정관사에 나타나는 특정성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영향권(scope)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체 식별(identification) 여부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었다. 우선 영향권을 중시하는 Fodor and Sag(1982)이나 Abusch(1993) 등의 논의에서는, 양화사 등이 발생시키는 영향권 사이의 관계로 인해 특정성/불특정성의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에서 제시한 'I want a book.'처럼 별다른 영향권의 충돌이 없는 단순한 문장에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정체 식별 여부를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화자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개체를 명사구의 지시체로 상정하고 있을 때 특정적[19] 이라고 본다.(Ioup 1977, 이정민 1992) 이 견해는 널리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전통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전영철,2013:18)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이후 논의에서 정체 식별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별하고자 한다. 이는 화자의 인지를 전제로 하는 특정성 정의이기에, 앞서 설정했던 한정성 정의와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특정성의 정의
: 화자가 명사구를 발화할 때, 지시체가 마음속의 어떤 개체에서 비롯된다면 그 명사구는 특정적이다.[20]

---

19) 박철우(2003:26)는 특정성에 대해 '화자가 화맥에서 접근 가능한 어떤 주체에 의하여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지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20) 다만 대상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그 정체가 불분명한 경우는 특정성 판별이 어렵다. 예를 들어,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어떤 개가 짖어서 잠이 깼어.'라고 말한다면, 이는 화자가 직접 본 것은 아니므로 (11)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은 경험을 통해, 가상의 '개' 지시체가 화자의 마음속에 이미 생성되었다면 '어떤 개' 또한 특정적이다.

3.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

현대 언어생활에서, ‘어떤’과 ‘한’은 의문사, 수사보다 비한정 표지로써 더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어떤’과 ‘한’ 모두 이전에 비한정 표지로 쓰이지 않았거나,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어떤’의 경우, 이전에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물을 때 쓰는 의문사로만 기능을 하다가, 18세기 말에 이르러 비한정 표지 용법이 등장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김충효,2000:107-109) ‘한’의 경우에도 중세국어 초기부터 꾸준히 비한정 표지 ‘한’이 수관형사 ‘한’과 함께 나타났지만, 그 빈도는 수관형사 쪽이 더 높았다. (김민국,2010:40-42) 즉 의문사와 수사의 ‘어떤’과 ‘한’이 더 옛 형태이므로, 비한정 표지는 동형어가 아닌 이상 이들에게서 기원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비한정성은 의문사와 수사로서 이들이 지니던 의미가 확장된 결과인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어떤’ 의문문은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모름] 자질이 의미 확장에 영향을 미쳤다. 보통 의문은 질문자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확신하지 못하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임홍빈,1988:103) 즉 확인, 요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도 의문문의 본래 목적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전에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하기에 비한정성은 이 [모름]의 자질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문의 경우 모르는 것을 궁금해 하며 답을 구하지만, 비한정성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이규호,2017:163)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문은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 [모름]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비한정성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지시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 정체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다음 예시에서 이러한 차이가 잘 나타난다.

(10) ㄱ. 너는 <u>어떤 사람</u>을 좋아하니?
ㄴ. 나 <u>어떤 사람</u>을 좋아하게 됐어.

(10ㄱ)의 경우, 청자가 의문관형사 '어떤'을 통해 청자가 좋아하는 사람의 속성이나 유형에 대해 질문한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 청자는 화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10ㄴ)의 '어떤 사람'은 화자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존재를 지시할 뿐,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어떤 사람'이 지시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정보가 더 제공되지 않는 이상 [모름] 상태로 남게 된다. 정리하자면, [모름] 자질이 바탕이 되어 '어떤'은 궁금한 대상을 가리키는 미지칭(未知稱)에서,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나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정칭(不定稱)까지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한편 '한'은 다른 이유로 비한정성을 지니게 되었다. 단수 표현은 보통 다른 개체들과 구분되는 어떤 한 개체의 존재를 가정하는데, 그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 다음 문장을 보자.

(11) 한 학생이 나에게 와서 화를 냈다. / 학생 = {민수, 철수, 영수, 준수}

(11)에서,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은, 학생 집합에 있는 사람들 중 나에게 와서 화를 낸 사람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 학생이 민수인지 철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한 학생'이 지시하는 것은 구체적인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생인 누군가이다. 따라서 '한'은 이 문장에서 비한정 표지로 쓰인 셈이다. 이처럼 단수는 보통 비한정적인 개체의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김민국,2010:40), 비한정 표지로 쉽게 쓰이게 된다. 결국 '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한정 표지가 되었다고 추측된다. 정리하자면, '어떤'과 '한'은 본래 그들이 지녔던 역할이 확장되며 비한정성을 지니게 되었다. 의문은 [모름] 자질이, '한'은 단수 표현에서 발생하는 존재 가정이 의미 확장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렇듯 그 기원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현대의 '어떤'과 '한'은 영어의 부정관사 'a'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서[21] 둘 다 관형사이며, 주로 비한정 표지로

21) 박진호(2007:137-138)에서는, 비한정 표지가 대개 한정사로 나타나는 영어 등의 언어와 대응하여, 한국어에 이와 비슷한 요소로 어떤, 어느, 무슨 등을 제시한다. 그 용법 또한 다양하게 제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문 표현부터, 특정-비한정,

쓰인다는 공통점을 지니게 되었다. 때문에 서로 유사한 기능과 분포를 보이며,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영어의 부정관사 ‘a’가 ‘어떤’이나 ‘한’ 모두로 자주 번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아래의 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1943)≫를 대상으로 부정관사 ‘a’가 한국어에서는 어떤 지시표현으로 번역되었는지 간단히 통계를 내 본 것이다. 별다른 지시표현이 결합하지 않은 맨명사구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한 송이 꽃, 한 사람’과 같은 ‘한’ 계열 수량사구가 많았다. 그 외에 단일 관형사로는 ‘어떤’이 가장 자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떤’, ‘한’ 명사구가 비한정성과 더불어 형식·의미상의 유사점을 더 지니고 있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역자	이효숙(2006)	김화영(2007)	민희식(2019)	전성자(1982)
∅	283 (69.8%)	292 (72.1%)	290 (71.6%)	287 (70.9%)
‘한’ 계열 수량사구	59 (14.6%)	63 (15.6%)	61 (15.1%)	73 (18.0%)
‘어떤’	33 (8.14%)	30 (7.4%)	30 (7.4%)	27 (6.7%)
	부정관사 ‘a’의 개수 : 405개			

[표 1] ≪어린왕자(1943)≫ 내 부정관사 ‘a’ 번역어 빈도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22]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범주화를 통해 두 어휘의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일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문사로서의 ‘어떤’, 수관형사로서의 ‘한’과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을 비한정 표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비한정 표지의 개념과 그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설정가능성을 검토한다.

자유 선택, 부정극성을 들었다. 이를 통해 도, -나/든지 와 더불어 ‘어떤, 어느, 무슨’ 등도 비한정 표지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22) 한국어에는 한정적/비한정적 명사구 모두에서 여전히 맨명사구의 쓰임이 활발한 만큼, 이들을 비한정 표지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3.1. 비한정 표지의 개념과 특성

비한정 표지(indefinite marker)는 비한정 명사구(indefinite NP)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잘 알려진 비한정 표지는 영어의 'a'로, 단수 일반명사 앞에 선행하여 청자는 해당 명사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언어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비한정 표지가 나타난다.

한 예로, 비한정대명사를 유형론적으로 분석한 Haspelmath(1997:21-23)에서는 'a' 외에도 some, any, no 명사구가 비한정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즉 영어에서는 'someone'이나 'any book'처럼 비한정 표지가 접두사나 선행사로 등장하고, 이는 꽤 대중적인 방식이라고 서술한다. 그러나 비한정 표지가 라틴어나 조지아어에서는 접미사로, 일본어나 독일어 등에서는 보조어(particle) 구성[23]으로 나타나는 등 그 방식이 언어마다 일관적인 것은 아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한국어는 한정성/특정성과 같은 명사구의 지시적 정보가 명시적인 문법 표지로는 나타나지 않는 언어이다. 관사가 있는 언어와 달리, 지시사 등이 경향적으로 한정적/특정적인 명사구를 형성할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명시적인 표지가 아니고, 일관적이거나 필수적인 것도 아니어서, 한정성/특정성 표지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많은 언어 비교·대조 연구들에서 지적한 어려움이기도 하다. 독일어 관사와 한국어 번역을 대조한 정재현(1996)에서는, 한국어에 지시사나 수사와 같은 대응 표현이 있기는 하나 필수적이지는 않아 한정성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우순조(1991:71) 또한 한국어에서 조사, 복수형 등이 다양한 문법적 기재가 복합적으로 명사구에 특정성 효과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항상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특정성의 명시적 기재에 대한 기대는 적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에서 두 가지 지점에 대한 동의는 나타난다.

---

23) 영어의 'any+N'에 대응하는 일본어 보조어 구성으로 'どの+N+も'를 제시한다. 이는 한국어의 '어떤+N+도' 구성과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둘 다 비한정 명사구이고 존재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Haspelmath(1997)의 분류 방식으로는, 한국어도 보조어 구성이 비한정 표지가 되는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특정 관형사나 조사 등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지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시관형사 이, 그, 저의 경우, 무엇으로 지시 조응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다른 느낌을 부여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 ㄱ. 어제 가게 주인한테 대파 좀 달라고 했더니, 글쎄 그 아주머니가 쪽파를 주지 뭐니?
ㄴ. 어제 가게 주인한테 대파 좀 달라고 했더니, 글쎄 이 아주머니가 쪽파를 주지 뭐니?

두 명사구 모두 선행하는 '가게 주인'과 동일지시적 쓰임을 보이나, (12ㄴ)의 '이' 명사구가 실제 사건 현장에 화자가 있는 듯 현장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는 '그'가 선행하는 문맥 속의 개체에 대한 무표적인 조응인데 반해, '이'는 선행한 문맥의 사건시에 화자의 참조시를 맞추어 그 안의 개체에 조응하기 때문이다.(장석진,1985:95-96) 따라서 후자가 사건이나 지시체에 더욱 직접적이고 생생한 지시 조응을 할 수 있다. 대상과 화·청자 사이의 인지적 거리 차이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도 한정성의 논의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양화표현이나 수식어[24] 등이 명사구의 지칭 대상을 제한하여 한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관사, 지시사, 양화사를 묶어 한정사(determiner) 범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철우,2012:3)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표현들이 관형사, 조사, 수사 등으로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 범주화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여전히 각 어휘가 지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표지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부여하는 지시성에도 어떠한 경향성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둘째로, 연구들에서는 각 표지들이 선호하는 명사의 양상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고유명사는 일반명사보다 한정성이 높아, 한국어에서 한정 표지로 쓰인 주어 상관 조사와 결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홍정하, 2010:315) 또한 한정 표지는 이 외의 다른 체언류들과도 활발히

24) 수량, 소유, 지시 등을 나타내는 어휘나 의문사 등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다른 언어들에서도 비슷하다.(양용준,2013:148)

공기하므로, 결합 가능한 명사의 종류에 제약이 적은 편이다. 반면 비한정 표지의 경우,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람, 물건, 장소, 시간, 양 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카테고리에 있는 명사들과 주로 결합하며, 한정 표지에 비해 결합 제약이 더 많은 편이다.(Haspelmath,2007:23) 한국어의 경우에도, 의문사 '어느, 어떤, 무슨'과 같이 비한정성이 강한 표지들이 대명사나 수사, 고유명사나 상태성 명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양용준,2013:156) 이렇듯 일반명사에 대한 선호는 박병선(2004)과 주위(2018)의 통계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어떤 어휘가 비한정 표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의 의도적 사용이 명사구에 비한정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명사 부류에 따른 결합 제약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 비한정 표지는 한정 표지와 연쇄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추가할 수 있다.

(13) ㄱ. <u>그 친구</u>가 참 친절하네.
ㄴ. <u>어떤 친구</u>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
ㄷ ??<u>그 어떤 친구</u>가 길에서 침을 뱉는 걸 봤어.
ㄹ. ?<u>어떤 무슨 마을</u>에서 잔치를 한다던데.

(13ㄱ)은 한정 표지인 지시사 '그'를 사용한 명사구이고, (13ㄴ)는 비한정 표지 '어떤'을 사용한 명사구이다. 그 문법적, 의미적 적절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13ㄷ)의 경우, 만약 '어떤 친구'라는 존재가 이전 담화에 등장했거나, 청자가 알 만한 사람이라는 단서가 따로 없는 이상 굉장히 어색한 발화가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반의(反意)의 자질을 지닌 두 어휘가 동시에 같은 대상을 수식한다면, 의미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독특한 것은, (13ㄹ)처럼 비한정 표지가 겹쳐 쓰이는 경우도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관형사는 같은 자질을 지니는 경우에도 겹쳐서 쓰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연주,2020:18) 그러나 언어 사용자에 따라서는 (13ㄹ)을 적절한 문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 예로 정연주(2020)는 이러한 직관을 기반으로 '어떤'과 '무슨' 같은 비한정 표지가 예외적으로 연쇄 가능하다 주장하기도 했다.[25] 결국 비한정 표지의 특성으로 그들 사이의 연

쇄 제약을 제시하려면, 타인의 언어 직관과 충돌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정-비한정 표지의 공기 제약만을 비한정 표지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추려, 비한정 표지의 설정 조건 세 가지를 우선 정리하였다.

(14) 비한정 표지의 설정 조건

ㄱ. 해당 표지의 의도적 사용이 명사구에 비한정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일반명사와 주로 결합하며, 고유명사, 유일성을 지닌 명사[26] 등 특칭적인 명사[27]와 결합하지 않아야 한다.

ㄷ.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비한정 표지는 한정 표지와 연쇄하지 못한다.

그런데 (14)의 조건 중, (14ㄴ-ㄷ)와 달리 (14ㄱ)은 판별이 문제가 된다. '어떤'과 '한'의 용례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 비한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귀납법적인 한계가 있다. 해당 표지가 한정 명사구에서도 쓰이는 등 반례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 절에서 (14ㄱ)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한정성 효과와 특수 용례 관찰도 함께 해보고자 한다.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란 한정적, 비한정적 표현들이 구분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이다.(전영철,2002:84) 한정성 제약에서는 한정적 표현들의 사용이 제한되고, 비한정성 제약에서는 비한정적 표현들의 사용이 제한된다. '어떤'과 '한'이 만약 비한정 표지라면 한정성이 제약되는 위치에서는 나타나지만, 비한정성이 제약

---

25) 더 나아가 지시관형사는 비한정 표지에 선행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정확히는 지시관형사 '그'와 '-(이)라도' 등 특정 보조사로 이루어진 보조어 구성에서 가능하다고 보았을 뿐, (13ㄷ)처럼 문맥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26) 예를 들어, 다른 것과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해'나 '달'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매우 특칭적이다.

27) 특칭적이라는 것은 지시 범위가 매우 좁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칭성이 강한 명사일수록 지시사와 결합하는 것이 어려운데(남기심,고영근,2014:64), 비한정 표지의 경우에는 한정 표지보다도 제약이 심하다.(홍정하,2010:316)

되는 위치에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한정성이 드러나는 용례는 없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야 한다.

3.2. 비한정 표지 '어떤'의 설정

우선 (14ㄱ)을 검토해본다. '어떤' 명사구가 비한정적으로 쓰이는 용례는 많이 관찰된다.

(15) ㄱ. 나는 예전에 어떤 과자를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어.
ㄴ. 어떤 노래는 가끔 날 슬프게 해.
ㄷ. 친구가 어떤 남자한테 반해서 요즘 연락을 안 해.

(16) ㄱ.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탕을 줬어.

(15ㄱ-ㄷ)는 '어떤' 명사구가 문장 내에서 각각 목적어, 주어, 부사어로 나타난 문장이다. 문장 내 위치와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다. 한편 (16ㄱ-ㄴ)은 한 쌍의 질의응답으로, '어떤'이라는 동일한 표면형이 나타나나 그 문법적 역할은 다르다. (16ㄱ)은 '어떤'이 의문사로 쓰인 경우로, 청자에게 '일'의 내용을 묻고 있다. 반면 (16ㄴ)은 명사 '사람'을 '어떤'이 수식하여, 그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이 현대에는 의문사보다 비한정 표지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어떤' 용례들에서 각 용법의 빈도를 검토한 박기선(2011), 한정한(2017), 장미라(2018)에서 동일한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28] 이 또한 비한정 표지로써 '어떤'이 강한 영향력을 지녔음을 암시한다.

또한 (8)의 한정성 정의에 비추어도, '어떤'은 비한정성을 불러일으키는 언어 표지로 보인다. (8)에 따르면, 비한정 명사구는 청자의 인지를 담보하

28) 특히 장미라(2018:492-493) 두 용법의 빈도 차이는 약 2.6배에 달하였다.

지 않기에 청자는 어떤 경우이든 그 존재만 인지할 뿐 그 지시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청자에게 비한정 표지 '어떤'을 포함한 명사구는 항상 새로운 정보가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문장을 제시하였다.

(17) ㄱ. 어떤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ㄴ. 내일은 어떤 카페나 가서 공부 좀 해야겠다.

(17ㄱ)에선 '어떤 친구'는 분명히 화자가 아는 대상일 것이다. 반면 (17ㄴ)은 '카페'라는 유형의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을 뿐, 특정한 카페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는 화자가 그 지시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후자는 화자 자신조차 특정한 개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에 청자는 맥락에서 더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화자도 청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을 것이기에, 둘 다 비한정적인 표현이다. 즉 비한정성은 화자가 그 지시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특정성이 청자의 앎을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정성/비한정성 판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7ㄱ,ㄴ)에서 맥락을 바꾸어 특정성을 다르게 가정해도 비한정성은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자가 자기 자리에 있는 선물을 발견하고 (17ㄱ)의 발화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화자는 자신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친구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특정한 대상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7ㄴ)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가고 싶은 카페 하나를 염두에 두고 한 발화라면 특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두 명사구는 모두 비한정적이다.

이렇듯 용례들을 관찰하면 '어떤'은 일관적으로 비한정 표지로 나타나나, 3.1.에서 지적하였듯 용례 관찰만으로 이루어지는 검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정성/비한정성 제약 또한 검토해보도록 한다.

우선 한정적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 '어떤'이 개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8) ㄱ. (싸움/어떤 싸움/#그 싸움)이 일어났어.
ㄴ. (#싸움/*어떤 싸움/#그 싸움)은 일어났어.

(18ㄱ)의 '일어나다'와 같은 술어는 이전에 담화에 존재하지 않던 개체가 새롭게 담화에 개입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개체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이기에 한정적인 표현은 제한되고 보통 비한정적인 표현을 요구하게 된다. (전영철,2002:87) 따라서 (18ㄱ)에서 지시관형사로 인해 한정성을 띠는 '그 싸움'은 다소 어색한 느낌을 준다. 반면 맨명사구인 '싸움'과 '어떤 싸움'은 비한정적으로만 해석되며, 자연스럽다.

한편 (18ㄴ)은 주격조사만 교체되었을 뿐인데 명사구들의 적절성이 (18ㄱ)와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화제 표지 '은/는'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정보구조에서 화제는 관계적 구정보이므로, 화제 표지 '은/는'은 한정적 표현만 취한다. 따라서 한정성 제약이 있는 술어와는 충돌을 일으키므로, 함께 사용하기가 어렵다. (18ㄴ)이 명사구의 형태와 관계없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다만 독특한 점은, '어떤'이 사용되었을 때는 수용이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맥락을 통해 한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나머지 두 형태와 달리, '어떤'은 강한 비한정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비한정적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 '어떤' 명사구가 제한을 받는지 살펴보자. 앞서 (18ㄴ)에서 관찰된 화제 표지 '은/는'에 의한 제약도 일종의 비한정성 제약으로 볼 수 있다. 전영철(2002)에서는 이에 더해 상적 속성이 있는 표현이 문장에 나타날 경우, 한정적인 표현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상적 속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개체가 담화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복 표현인 '다시' 등은, 발화 이전에 같은 사건이 한 번 이상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등장하는 개체는 한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한정적 해석이 제한된다.

(19) ㄱ. 아이가 다시 놀고 있어.
ㄴ. 그 아이가 다시 놀고 있어.
ㄷ. ?어떤 아이가 다시 놀고 있어.

(19ㄱ)의 '아이'는 '다시'의 상적 특성으로 인해 한정적으로만 해석된다. (19ㄴ) 또한 한정적 표현이기에 해석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19ㄷ)의 경우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 문장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맥락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교대로 노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장은 특정한 아이가 노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이'의 집합에 있는 누군가가 놀이터에서 노는 상황 자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러므로 '어떤 아이' 자체는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못하고 있어, (19ㄷ)의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즉, '어떤 아이'는 비한정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정성/비한정성 효과를 통한 검증에서 '어떤' 명사구는 비한정성을 지닌 것으로 판명된다.

한편 그 외에도 '어떤' 명사구가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상정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을 사용하였는데도 한정성이 드러나는 용례[29]가 있다면,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거나 관습적인 쓰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작위적이긴 하나,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꾸며내 보았다.

(20) A :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B : (어떤 인물 사진을 보여주며) <u>어떤 친구</u>한테 선물을 받았거든.

(20)에서 사진을 통해 주어지는 맥락 정보가 있기에, A와 B 모두 '어떤 친구'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친구'는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이 지시 대상에 한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못한 해석이다. 이 상황처럼, 화자가 지시 대상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스스로 제공하고도 비한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의도적인 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발화 의도는 여러 맥락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화자가 잠재적 청중을 설정

29) 이때 불특정적인 '어떤' 명사구는 한정성이 나타날 여지가 없어 따로 고려 대상에 두지 않았다. 화자가 비한정 표현으로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맥락을 조작하여도 '어떤' 명사구에 한정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불특정적인 대상은 화자마저 그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청자가 그 정체를 아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경우이다. 만약 해당 담화 상황에서 B가 A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그 친구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다면, 그들을 잠재적 청중으로 설정하고 비한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수 있다. 즉 담화상의 청자들 중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보다, 근처에 있는 잠재적 청중을 고려한 발화였던 것이다. 이 경우 '어떤 친구'는 여전히 비한정적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명사구는 한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이러한 표현을 비한정 표지 '어떤'에 대한 반례로 삼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 외에, '어떤' 명사구가 한정성을 지니는 다른 예시는 거의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어떤'의 기본 의미가 어떠한 속성을 지닌 존재의 단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염재일,2007:40) 즉 새로운 개체의 도입을 전제하므로 한정성이 부여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지금까지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의 일부 항목을 '어떤' 명사구에 적용하고, 특수한 용례도 살펴보았다. 다양한 조건을 적용해보지는 않아 다소 편협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으나, 앞서 제시된 용례들처럼 '어떤' 명사구는 일관적으로 비한정성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14ㄴ)에 따라 '어떤'이 고유명사나 유일성이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1) ㄱ. *<u>어떤 철수</u>가 갑자기 교실에 들어왔다.
ㄴ. *<u>어떤 해</u>는 하늘에서 빛난다.

(21ㄱ,ㄴ)은 매우 어색한 문장이므로 '어떤'은 (14ㄴ) 또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이 지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지시 표현은 어떤 개체를 다른 개체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미 강한 특칭성을 지니고 있는 고유명사는 '어떤'과 함께 쓰이기 어렵다. 다만 이 문장은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데, (21ㄱ)에서 철수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 담화 상황에 가정되어 있다면, 다른 철수들과 구분되는 '어떤 철수'의 쓰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교실에 갑자기 들어온 존재가 그 철수 중 하나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어떤'은 특성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진 개체가 많다는 것을 가정한다.(염재

일,2007:40) 즉 이 경우는 ‘철수’가 한 대상을 다른 개체와 구별에서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철수라는 특성을 가진 일반명사로 본 것에 가깝다. (21ㄴ)도 마찬가지로 다른 ‘해’의 존재가 가정되어야 적절한 문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4ㄷ)을 살펴보면, ‘어떤’은 다른 한정 표지와 연쇄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앞서 (13ㄷ)에서 이미 지적하였는데, 한정성을 부여하는 지시사 ‘그’는 ‘어떤’과 연쇄할 때 매우 어색한 문장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는 ‘어떤’에 ‘-(이)라도, -(이)든’ 등 몇몇 조사가 결합한 연어 구성에 선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가 전칭적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만 할 뿐이어서 지시성이 매우 약해지므로, (ㄷ)의 반례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떤’은 (14ㄷ)도 충족한다
결과적으로, ‘어떤’은 (14ㄱ-ㄷ)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비한정 표지에 속한다.

3.3. 비한정 표지 ‘한’의 설정

‘한’은 ‘어떤’보다 비한정 표지로 논의하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떤’의 경우, 비한정 표지로의 쓰임을 더 자주 보이기도 하고, 의문사적 쓰임과 지시사적 쓰임의 구분이 용이하여 연구에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 본래 수관형사인 ‘한’은 비한정 표지로 사용될 때에도 단수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어 수사적 쓰임과 지시사적 쓰임을 구분하기 어렵고, 다양한 수량사구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사람 한 명, 사람 하나, 한 명의 사람’이 지시적 정보로서 완전한 동의 관계에 있는가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유현경(2008:70)이나 김민국(2010:44)은 이에 대해, ‘한’이 분류사로 쓰이지 않는 일반 자립명사와 결합하였을 때는 보통 비한정 표지로 쓰인다고 보았다. 반면 수관형사나 비한정 표지로서의 쓰임은 전적으로 맥락에 달려 있다고 보아, 일차적 동의 관계로 규정하기도 한다.(윤희수, 이선웅, 2018:147) 그렇기에 본고는 서론에서 ‘한+N’ 구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한+N’ 구조를 기준으로, ‘한’ 명사구가 비한정적

으로 쓰이는 예시를 아래에 제시해보았다.

(22) ㄱ. 길 가는데 한 가게가 예뻐서 쳐다보게 되더라.
ㄴ. 나 오늘 동사무소에서 한 아저씨를 만났어.
ㄷ. 선생님이 사탕을 꺼내 한 아이에게 주었다.

(22ㄱ-ㄷ)는 '한' 명사구가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 자리에 쓰인 것이다. '한'은 수식하는 대상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구체적으로 그 지시체가 무엇인지 청자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한'이 부정칭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한'은 '어떤'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 교체하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은 비한정 표지 '어떤'과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한'이 직접 명사 앞에 선행하는 '한+N' 구성은 다른 수량사 구성과 달리 비한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수량 '하나'가 비한정 표지로 문법화되어 다른 수량 표현과 변별되는 현상은 보편적[30]이며, 이는 한국어에서도 동일하다. (김혜진,2023:159) 수는 어떤 대상의 의미 영역을 한정짓기 때문에 지시적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하나'의 단수 속성은 여기에 존재나 유일성의 단언 등 의미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또한 통시적으로 '한'은 그 단수 의미가 확장되어, 비한정 표지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김민국(2010)은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까지 문헌별로 '한' 용법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중세국어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비한정의 '한' 용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늘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국어에서는 비한정 표지 '한'의 용법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향성은 유현경(2008), 제경미(2019)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대의 '한+N' 구성은 대부분 비한정적인 쓰임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3.2.에서처럼 한정성/비한정성 제약, '한+N' 구성이 한정적으로 쓰이는 용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존재 단언 술어 '일어나다'를 통해 한정성 제약부터 살펴본다.

30) Greenderg(1978), Heine(1997)을 참고할 수 있다.

(23) ㄱ. (싸움/한 싸움/#그 싸움)이 일어났어.
ㄴ. (#싸움/*한 싸움/#그 싸움)은 일어났어.

(23ㄱ,ㄴ) 모두, '어떤'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23ㄱ)에서는 '한' 명사구가 '어떤'과 같은 의미로 자연스럽게 쓰였고, (23ㄴ)은 화제표지 '은/는'의 제약에 따라 사용이 강하게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 명사구가 문장에서 비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비한정성 제약 문장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24) ㄱ. 아이가 다시 놀고 있어.
ㄴ. 그 아이가 다시 놀고 있어.
ㄷ. ?한 아이가 다시 놀고 있어.

상적 속성이 있는 반복 표현 '다시'가 있으므로, '아이'가 발화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이 전제된다. 따라서 '아이'는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24ㄷ)은 특별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는 발화이므로[31], 여기서 '한 아이'가 보통 비한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한' 명사구가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상정해보아야 한다. 우선 (20)처럼 화자가 한정적인 대상에 의도적으로 비한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한정성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20)의 '어떤'은 '한'으로 교체하여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같은 논의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 명사구도 '어떤' 명사구처럼 한정성을 지니는 다른 예시를 거의 찾을 수 없는데, 이는 '한'이 존재 단언이라는 속성을 지니기에, 어떠한 특성을 지닌 개체 하나를 담화 내에 새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성을 지니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 역시 비한정성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고, 한정성을 지니는 반례도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일관적으로 비한정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1) (ㄷ)이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3.1.에서 설명하였다.

더불어 ‘한’은 특칭성이 강한 명사류와 함께 쓰이지 않아 (14ㄴ)도 만족한다.

(25) ㄱ. *한 철수가 갑자기 교실에 들어왔다.
ㄴ. *한 해는 하늘에서 빛난다.

(25)의 두 문장 모두 매우 어색하다. ‘한’은 단수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이기는 하지만, 비한정 표지로 쓰일 때는 지시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32] ‘하나’는 단수로서 수식하는 대상을 다른 개체와 분리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비한정 지시사로도 쓰일 수 있다.[33]

(26) ㄱ. ?? 갑자기 그 한 싸움이 일어났다.
ㄴ. 나는 이번 학기에 그 한 수업만 재밌더라.

마지막으로 비한정 표지로 쓰인 ‘한’에는 한정 표지가 연쇄할 수 없다. 한 예로 위의 (26ㄱ)에서, 서술어 ‘일어나다’는 보통 비한정성을 지닌 명사구를 요구한다. 따라서 ‘한 싸움’은 적절하나, 지시사 ‘그’가 추가되어 한정성이 부여되는 경우 의미 해석이 매우 어색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한’이 비한정 표지라면 한정 표지의 연쇄는 제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26ㄴ) 같은 예문들이 쉽게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한’은 수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관형사는 중첩되어 수식을 하는 경우 지시-수-성상관형사 순으로 배열되는데, 본래 수관형사인 ‘한’이 이를 따른 명사구인 셈이다.[34] 따라서 지시관형사의 지시성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26ㄴ)은 비한정 표지 ‘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32) 그렇지만 지시적인 용법의 한을 수관형사 ‘한’의 동형어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지시적 ‘한’이 기본의미 ‘하나’에서 전이된 것이기도 하고, 용법을 구별하기 어려운 용례들도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 (유현경,2008:80)

33) 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비한정 관사로 발달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Croft 2003:254), 영어의 부정관사 ‘a’ 또한 같은 맥락에서 단수와 비한정성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34) ‘어떤’은 그 성격이 지시관형사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역할 혼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한’이 비한정성을 지니기 위해 유정명사와 결합해야 한다는 제약을 두기도 하지만(양명희,2005:263), 무정명사와 결합하는 반례가 자주 나타나기에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은 (14)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비한정 표지에 포함된다.

정리하면, ‘어떤’과 ‘한’은 둘 다 비한정 표지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대 사전 기술에서도 두 어휘의 의미 기술에 비한정의 의미 항목과 용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어휘의 사전 기술을 간단히 살펴보고 3장을 마치도록 한다. 널리 사용되는 네 개 사전에서 나타난 두 어휘의 정의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고, 비한정 표지와 관련된 항목에 밑줄을 표시하였다.

	어떤	**한**
표준국어 대사전	① (의문문에 쓰여)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② (의문문에 쓰여) 주어진 여러 사물 중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③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아니하고 이를 때 쓰는 말. ④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할 때 쓰는 말.	①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②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③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④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①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을 때 쓰는 말 ② 여럿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③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를 때 쓰는 말	①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② 일부 명사 앞에 쓰여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③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

	④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④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① (주로 의문문에 써서) 알지 못하지만 알아야 할 것을 지정하여 가리키는 말. ② 특정한 물건, 사람의 모양이나 성질이 궁금할 때 물어보는 말. ③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정하여 가리키는 말. ④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은.	① 하나의 ② 같은 ③ 대략
우리말큰사전	① '어떠한'의 준말 ② 여럿 가운데의 일정하지 않은 하나인	① '하나'의 뜻 ② '대략'의 뜻 ③ '같은'의 뜻 ④ '어떤, 어느'의 뜻

[표 2] '어떤'과 '한'의 사전 기술

우선 '어떤'의 경우, 대부분의 사전에서 비한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말큰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의 경우 특정적인 쓰임과 불특정적인 쓰임을 별개의 의미 항목으로 구별하고 있어, 두 용법이 모두 한국어에서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도,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을 제외하고는 비한정 표지를 한 항목으로 싣고 있다. 독특한 점은 모든 사전에서 그 의미를 '어떤'과 연결 짓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과 '한'이 교체되어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기능이 유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특정성

한정적인 것은 특정적이다. 따라서 특정성/불특정성을 구분하기 위한 논의는 비한정적인 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비한정 표지인 부정관사 ‘a’를 중심으로, 특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비한정 표지로 간주되는 ‘어떤’과 ‘한’이 특정성 표지인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1.3.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불특정적 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기에 이들을 특정성 표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한정 표지로서 이들이 특정적인 용법으로 활발히 쓰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1.2.에 따라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아래 표에서도, 특정적 용법은 두 말뭉치 모두에서 불특정적 용법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한’ 명사구는 ‘어떤’ 명사구에 비해 특정적 용법과 불특정적 용법의 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35]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는, 특정적 용법에서 불특정적 용법보다 더 적은 분포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특정적 용법 내에서 ‘어떤’과 ‘한’ 명사구의 분포 차이가, 불특정적 용법의 그것보다 크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특정적	불특정적
어떤-N	28 (56%)	22 (44%)
한-N	29 (58%)	21 (42%)

[표 3] ‘일상 대화 말뭉치’의 특정적/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35) 이는 해당 명사구의 불특정적 쓰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5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특정적	불특정적
어떤-N	268 (53.6)	232 (46.4)
한-N	337 (67.4)	163 (32.6)

[표 4] '구어말뭉치'의 특정적/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4-5장에서는 '어떤/한' 명사구의 특정성, 불특정성을 살피는 한편, 이러한 추론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먼저 4장에서는 용례들을 중심으로, 특정적으로 쓰인 '어떤'과 '한' 명사구가 보이는 분포상의 제약과 의미 기능에 대해 서술한다. 분포 제약에서는 이들과 함께 명사구에 결합하는 조사, 지시관형사와의 관계를 다룬다. 그리고 의미 기능에서는 특정적인 용법에서 주로 나타나는 의도성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4.1. 특정적 '어떤'과 '한'의 분포 제약

4.1.1. 조사 결합 제약

(27)은 ≪어린왕자(1943)≫의 번역본들에서 '어떤'과 '한'이 특정적으로 쓰인 용례 일부를 모아본 것이다. 특정 명사구는 주어, 부사어 등 문장 내 다양한 위치에서 등장하고 있어, 여러 조사와 공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27) ㄱ. 나는 어떤 별에 살고 있는 얼굴이 뻘건 아저씨 하나를 알고 있어.
ㄴ. 나는 원시림에 관한 어떤 책에서 멋들어진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ㄷ. 어떤 꽃하고 말썽이 있었거든.
ㄹ.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을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던 것이다.
ㅁ. 그 별에는 한 노신사가 있었다.

(27ㄱ-ㅁ)에서 해당 명사구들은 모두 지시된 대상이 새롭게 담화 내에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3장에서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이 비한정성 표지임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들 명사구가 나타나면, 청자에게 지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명사구의 지시 대상이 새롭게 담화 내에 도입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아래 (28ㄱ-ㄴ)에서도, '어떤'과 '한'을 통해 김밥을 먹는 사람이 담화 내에 새로 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28) ㄱ. (어떤/한) 사람이 김밥을 먹었다.
ㄴ. (어떤/한) 사람은 김밥을 먹었다.

그런데 같은 주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8ㄱ,ㄴ)의 주격 표지는 다르게 나타난다. (28ㄱ)의 경우, 주격 표지로 '이/가'가 나타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비한정적인 표현은 청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담화 내 신정보를 가리킬 때에 자주 사용되므로 관계적 신정보를 나타내는 초점 표지 '이/가'와 잘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한'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나타날 때, 특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초점 표지가 선호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28ㄴ)은 대조초점 표지로서 '은/는'이 결합한 경우로, 구정보를 나타내는 화제 표지의 '은/는'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 문장들을 통해 알 수 있다.

(29) ㄱ. 어제 학교에 방문했는데, (어떤/한) 학생이 길을 물었다.
ㄴ. *어제 학교에 방문했는데, (어떤/한) 학생은 길을 물었다.
ㄷ, (어떤/한) 사람은 라면을 먹고, (어떤/한) 사람은 김밥을 먹었다.

(29ㄱ)은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길을 묻는 학생은 담화에 새로 등장한 개체이기 때문에 신정보로 취급되어 초점표지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정보는 아니었으므로, (29ㄴ)처럼 화제표지가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29ㄷ)처럼 무언가를 먹는 사람의 대안집합이 있음을 나타내는 대조표지 '은/는'은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29ㄱ,ㄴ)처럼 화제표지와 보이는 제약은 사실 특정성보다는 비한정성과 관계가 있다. 화제표지는 근본적으로 한정성을 함의하기에, 특정적이든 아니든 비한정 표지인 '어떤', '한'과는 결합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불특정적 용법을 다룬 5.1.1.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조초점 표지의 등장은, 특정적 용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특정적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36]

이처럼 대조표지가 특정적 용법에만 결합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안집합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가정된 대안집합에서 한 개체를 새로운 초점으로 등장시키면, 해당 개체는 기존의 집합과 부분관계를 이룬다. 화자가 가정된 대안집합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속에 포함된 개체나 부분집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대조초점이 부여된 개체는 자연스럽게 특정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특정적인 '어떤/한' 명사구와만 결합하는 것이다.

한편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조사 결합 경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선 각 결합형 모두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빈도수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초점표지 '이/가'와의 결합이 대조 초점 표지 '은/는'의 결합보다 자주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체 문장 수를 기준으로 5-10% 내외의 빈도 차이라 유의미한 결과로 보지는 않았다.

	이/가	은/는
어떤-N	15	11
한-N	8	5

[표 5] '일상 대화 말뭉치'의 조사 별 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36) 후술하겠으나, 불특정적 용법은 주어 자리에서 초점 표지 '이/가'만 나타난다.

	이/가	은/는
어떤-N	96	69
한-N	86	58

[표 6] '구어말뭉치'의 조사 별 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또한 해당 부류에 속하는 말뭉치 용례를 분석하면, 초점 표지와 대조 표지로서의 역할 이외에 특이한 기능을 보이는 예문이 따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30)에 말뭉치 용례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30) ㄱ. 어떤 사람이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
ㄴ. 그때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연기가 나는 권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ㄷ.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저 주문을 했는데 하도 안 온다는 거야
ㄹ. 한 사람이 스무 잔이 넘게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혼자 만드느라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ㅁ. 바짝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페달을 밟아 제시간에 도착해 순서를 기다리는 데 대기 중인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ㅂ.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어 나 호랑이 봤어 저기에 그러고 인제 뭐 없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는 특정적 '어떤/한' 명사구에 조사 '-이/가'가 결합한 용례이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며, 결합한 명사구가 맥락 내에 새로 도입되는 개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청자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대상 그 지시 대상을 실체를 알 수 없고, 화자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지시 대상을 내부에 표상할 수 있다.

(31) ㄱ.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 못 해요
ㄴ.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놀랠 일이냐 이러기도 하고요

ㄷ. 어떤 사람은 세 잔 정도 마셔야지 그게 나오는데
ㄹ.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참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ㅁ. 하나는 잡티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뭐 이렇게 경기도 산다고 해서 깍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ㅂ. 그런데 한 사람은 밀가루 반죽할 때부터 계속 장난치고 얼굴에 묻히고 막 던지고 하란 대로 안 하고 더 많이 굽고
ㅅ. 한 사람은 해외 감염으로 추정이 돼요

한편 (31)은 특정적 '어떤/한' 명사구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한 용례이다. (30)와 동일하게 초점 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명사구의 대조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31ㄱ)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 사람을 우선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지시하며 '-은/는'을 사용한 경우이다. 따라서 대조 초점 표지로 볼 수 있다. 선행 문맥에 대조군이 명시되지 않은 (31ㅅ)의 경우에도, 보조사 '-은/는'을 통해, 해외 감염이 된 사람 외에 다른 대안 집합(이를테면 국내 감염이 된 사람)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대조 표지이다. 화제 표지로서의 결합형은 '이/그/저'류 지시사가 선행하지 않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면 특정적 용법에서 조사 결합 제약은 표면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가'와 '-은/는'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제 표지와 초점 표지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어떤/한' 명사구는 비한정 표지이므로 용례에서는 초점 표지로서의 쓰임만이 나타났다. 한편 '-은/는' 초점 표지이면서 대조 표지로서의 특수성도 관찰된다.

4.1.2. 지시관형사 결합 제약

3장에서 '어떤'과 '한'의 비한정 표지 설정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설정 조건 중 하나는 한정 표지와의 연쇄가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이때 지시관형사 '그'의 쓰임이 어색한 예시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말뭉치 용례에서는, (32)과 같이 많은 반례들이 나타난다.

(32) ㄱ. 그 선생님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멈추고 화해하지 않는 한 이 테러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ㄴ. 지금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ㄷ. 그 진돗개를 데리고 이제 어떤 개 주인이 산책을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굉장히 큰일 날 뻔 했어요.
ㄹ. 세상에는 그렇게 속물적인 욕구로써 백 퍼센트 똘똘 뭉쳐있는 그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게 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ㅁ. 근까 저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남을 때렸어요

(32)는 '이, 그, 저'가 '어떤' 명사구와 결합하는 다양한 용례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시 대상이 앞선 문맥이나 대화 상황에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즉 해당 명사구는 한정성을 지니며, 지시관형사가 이를 부여한다. 한정적이라면 동시에 특정적이므로 결국 특정적 용법의 '어떤' 명사구는 '이, 그, 저' 모두와 결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어떤'과 '한'은 한정 혹은 비한정 표지로 쓰인 것이 아니라[37], 선행 문맥이나 담화 상황에서 이미 등장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중복 표현에 가깝다.

(33) ㄱ. (이/그/저)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ㄴ.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ㄷ. (어떤 한/*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한편 (33ㄱ)에서 '한'도 '그' 선행 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이 비한정 표지가 아니라 수관형사로 쓰인 경우이다. (33ㄱ)

37) 5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불특정적인 '그 + 비한정 표지 어떤'은 '-(이)든, -(이)라도' 등 몇몇 요소와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전칭 표현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명사구는 결합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라는 표현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인물이라면 비교·대조 대상이 그 인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전칭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의 지시관형사가 강한 지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비한정 표지여서, 다른 지시관형사나 비한정 표지와 함께 쓰일 때 그 지시성을 잃고 수관형사로 쓰이게 된다. 예를 들어, (33ㄷ)에서 '한'은 '어떤'에 반드시 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한'이 비한정 표지의 자격을 잃고 수관형사로 쓰이게 되면서 관형사 어순 제약을 받은 결과이다.

정리하면, '어떤'과 '한' 모두 표면적으로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어떤' 명사구는 이 경우 한정성을 지니게 되고, '한'은 수관형사로 쓰임이 바뀌는 등 기존의 비한정적-특정적 해석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즉 특정적 용법에서 지시관형사는, 결합 시 그 지시성을 유지하므로 본래는 비한정적인 '어떤, 한' 명사구의 지시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4.2. 특정적 '어떤'과 '한'의 의미 기능

앞서 3장에서 '어떤'과 '한'의 비한정성이 그들의 본래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비한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기능을 지니는가? 우선 2장의 한정성 정의를 기반으로 하면, 비한정성은 청자 입장에서 지시 대상이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화자 자신이 지시 대상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비한정 명사구는 그것이 담화 영역의 실체를 지시하는 것인지에 대해 일단 중의적이기 때문이다.(S. Wright & T. Givón,1987:11) 즉 화자 자신도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고, 알고는 있으나 굳이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는 화자의 [모름]이고, 후자는 청자의 [모름]이다. 결국 이는 특정성/불특정성의 영역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비한정 명사구는 특정적이거나, 불특정적이다.

Haspelmath(1997:45-46)는 여기에 구분 기준으로 '화자가 지시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더 제시한다. 이에 따라 중간 단계에 특정적이지만 화자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대상이라는 의미 기능을 추가하여, 비한

정적 명사구의 의미를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규호(2017:158-164)는 화자가 지시 대상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비한정성을 세 가지 의미자질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막연함]으로, 화자가 대상의 정체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불분명]으로, 정해진 대상이 있기는 하나 그 정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안밝힘][38]은, 대상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잘 알고 있으나,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이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한정적 명사구		
불특정적 명사구	특정적 명사구	
화자가 잘 알지 못함		화자가 잘 알고 있음
[막연함]	[불분명]	[안밝힘]

[표 7] 비한정적 명사구의 의미 기능 구분

한편 본고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기반으로 의미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성 혹은 불특정성 판별이 어려운 [불분명]을 특정성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4장에서는 특정적 '어떤'과 '한'의 의미 기능으로, [안밝힘]과 [불분명]이 지니는 의도성과 경험 서술의 성격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8) 장미라(2018:488-490)에서는 부정(不定), 즉 비한정의 의미를 막연함, 제한되지 않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화자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다. 후술하겠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특정성이 있는 [안밝힘] 기능의 사용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4.2.1. 의도성

특정적인 ‘어떤/한’의 사용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불특정적인 ‘어떤’의 사용보다 유표적이다. 잘 모르는 것을 불분명하게 지시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반대로 화자가 지시 대상의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필연적이지 않은, 의도적인 행위이다. 즉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성]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특정적 ‘어떤/한’ 명사구는 의도성을 지니는데, 그 정도에 따라 용례를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는 실체를 알고는 있지만, 화자가 그것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청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지시 대상의 실체를 청자가 아는 것이 화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이다. 뒤로 갈수록 의도성이 강하다. 이는 맥락에 의존한 구분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특정적 용법의 화용적 기능을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로, 화자가 지시되는 대상의 존재는 짐작하고 있으나, 그 실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용례가 있다. 따라서 의도성이 가장 낮은 경우이다.

(34) ㄱ. 아마도 <u>어떤 다른 목소리</u>가 그와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ㄴ. 어린 왕자는 <u>한 높은 산</u> 위로 올라갔다.

(34)은 둘 다 ≪어린왕자≫의 문장이다. (34ㄱ)은 주인공인 화자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으나, 그것이 목소리인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34ㄴ)은 어린왕자의 지구 여행 경험을 전달하는 장면이다. 두 경우 모두 화자가 지시 대상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어 특정적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설정하였던 특정성 정의에 따르면, 이들도 특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34ㄱ)의 경우, 화자가 소리가 들리는 현장에

서 발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확히 목소리인지는 판별하지 못하나, 그 실체인 소리를 직접 지시할 수 있기에 특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떤 목소리'는 지시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기에, 그 실체의 속성이 정말 목소리인지 여부는 특정성 판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34ㄴ)의 경우는 간접경험 내 개체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서술하였지만, 화자가 이미 경험 수용을 통해 해당 개체를 내부에 표상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제 산의 모습을 모르더라도, 화자가 '어린왕자가 올라갔던 산'으로서 개체를 내부에 표상하고 있으면, 이는 특정성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실제 개체를 모르거나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특정적인 '어떤/한' 명사구는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 실체를 아는 것이 내용 전달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경우가 있다. 지시체에 대한 정보는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은닉할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 정도의 의도성을 지닌다.

(35) ㄱ. 나는 시뻘건 얼굴을 가진 신사가 살고 있는 <u>어떤 별</u>을 알고 있어. <u>그는</u>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별을 쳐다본 적도 없어.
ㄴ. 나는 어린왕자가 살던 별이 B612호라는 믿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u>그 별은</u> 1909년에 <u>한 터키 천문학자</u>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35ㄱ-ㄴ)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대상은 신사와 별이다. 후술되는 문장에서 화제표지인 '은/는'이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즉 '별'이나 '터키 천문학자'는 담화 내에 새로 도입되는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적인 내용이 되므로, 그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화자 자신이 그 실체를 표상하고 있더라도 비한정 지시를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한' 명사구를 쓸 수 있다.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닉하는 것이므

로, 가장 의도성이 크다. 앞서 3.2.의 (20)에서 화자가 주변의 잠재적 청중들을 고려하여 비한정적인 명사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선물을 준 누군가를 청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고 싶지만, 그 대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때 의도적으로 특정적인 '어떤/한' 명사구가 나타날 것이다. 말뭉치 용례에서는 이 외에도, 재판이나 언론 보도 등 대상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비한정 지시를 자주 사용하였다. (36)은 그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36) ㄱ. 어떤 사람이 육사 출신으로 중령 계급을 가진 사람이 인제 심판관으로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기소된 피고인이 사격장에서 가혹 행위를 한 대위였습니다
ㄴ. 일단은 이십대 남성이 한 사람을 살인한 사건이 대림역 부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4.2.2. 경험의 서술

의도성과 더불어, 특정적 '어떤/한' 명사구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지시하는 개체가 화자의 경험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명사구가 사용된 문장은, 화자가 그것에 관한 어떤 경험을 하였음을 서술하게 된다. 앞서 4.2.1.처럼 특정적 명사구가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는 용례에서 주로 나타난 것도, 그 영향으로 보인다. 아래 문장은 모두 '어떤/한' 명사구가 특정적으로 쓰인 것들이다.

(37) ㄱ. 나는 어떤 별에 살고 있는 얼굴이 뻘건 아저씨 하나를 알고 있어.
ㄴ. 나는 원시림에 관한 어떤 책에서 멋들어진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ㄷ. 나는 한 여우를 알고 있어.

(37ㄱ-ㄷ)을 보면, 세 문장 모두 '어떤/한'이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특정한 표상이 화자에게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세 개체 모두 화자의 경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직접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그 속에 등장한 개체에 대한 특정한 표상이 화자 내부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즉 '어떤/한'이 특정한 개체를 가리킬 때에는 그것을 다른 개체들과 구별할 만한 특성을 가정해야 하는데(염재일,2007:40), 보통 이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7ㄷ)을 발화할 때는 일반적인 '꽃'들의 집합과, 그 속에서 화자가 지시한 어떤 꽃 개체 하나를 상정할 수 있다. 화자가 이 개체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와 말썽이 있었기에, 이를 특성으로 삼을 수 있어서이다. 이처럼 경험은 그 자체로 특성이 되어 영역 내에 있는 개체에 특정성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적인 '어떤/한' 명사구에서 지시되는 대상은 화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보통 화자 자신이 직접 그 상황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명사구 또한 직접 경험으로 획득한 특정성과, 간접 경험으로 획득한 특정성이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전달하는 문장과, 간접 경험한 사건을 전달하는 문장을 따로 만들어 제시해보았다.

(38) ㄱ. (어떤/한) 사람이 이번에 학교에서 절도로 잡혔대.
ㄴ. (어떤/한) 사람이 애한테 나쁜 말을 하데.
ㄷ. (어떤/한) 사람이 책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ㄹ. (어떤/한) 사람이 갑자기 학교에서 갑자기 춤을 추더라.

한국어에서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종결어미로 구별할 수 있다. (38ㄱ, ㄷ)은 종결어미 '-대'와 '-다더라'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이 들은 것을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즉 간접적인 경험에 대한 서술이다. 반면 (38ㄴ, ㄹ)은 종결어미 '-데'와 '-더라'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사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경험의 양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화자가 어떤 명제를 참으로 규정하고 청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우선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진리치를 논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참임을 화자 스스로가 알 수 있으므로 문제의 여지가 없다. 간접 경험도 화자가 해

당 명제를 참이라고 여긴다는 것이 가장 무표적인 해석이다.[39]

따라서 직접·간접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험 내부에 있는 개체들은 특정성을 지녀야 한다. 청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억 영역에 저장할 때, 이미 그 개체 또한 존재가 알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경험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간접경험은 전달자에 의해 화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내부에 있는 개체의 실체를 화자가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간접경험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듯 화자가 이미 그것이 참이라고 규정한 사실이다. 따라서 원래 전달자가 지니고 있던 경험 영역은 화자의 경험 영역으로 흡수되어, 화자는 그 내부에 있는 개체 또한 하나의 실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38ㄱ,ㄷ)에서 '어떤 사람'은 특정성을 지니는데, 이는 화자가 발화 이전에도 간접 경험을 통해 그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적인 '어떤/한' 명사구는 화자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포함된 개체의 표상과 연결된다. 따라서 그 명사구의 사용은 곧 자신의 경험 일부를 서술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경험 서술'은 특정적인 '어떤/한' 명사구의 주요 의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

39) 예를 들어, (ㄷ)에서 화자가 '철수가 이번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ㄷ)을 발화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의심을 청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즉 해당 명제가 참이라고 여길 때는 무표적으로 (ㄷ)만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거짓이라고 여길 때는 전후 맥락이나 새로운 발화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 철수가 이번 시험을 통과했다더라. 근데 걔 공부 안했잖아.

5.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불특정성

불특정적인 ‘어떤/한’의 명사구는 화자와 청자 모두 지시되는 대상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제일 한정성이 낮다. 즉 특정적인 ‘어떤/한’의 용법과 비교하면 비한정성이 더 큰 용법인 셈이다. 화자에게도 막연하거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그간 비한정 표지 ‘어떤/한’의 지시적 정보 연구가 특정적 용법 위주로 이루어졌기에, 불특정적 용법이 사용될 때의 문법적, 의미적 양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 이는 불특정적 용법이 예외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용례가 적어서는 아니다. ‘어떤’의 경우, 불특정적으로 쓰이는 용례가 여럿 나타난다.[40]이는 말뭉치 용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데, [표]에서 불특정적인 용례는 전체 문장의 30-50% 비율로 높게 나타난다. 아래의 (39)에 ≪어린왕자≫에서 나타난 불특정적 용례를, (40)에 말뭉치에서 나타난 불특정적 용례 일부를 제시해보았다.

(39) ㄱ. 별은 <u>어떤 사람</u>에게는 그저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
ㄴ. 네가 가장 먼저 <u>어떤 생각</u>을 해내서 특허를 얻으면, 그것은 네 것이 돼.
ㄷ. 하지만 (나는) 그 <u>어떤 왕</u>의 손가락보다도 강하지.
ㄹ. 어린왕자는 지구에 도착할 당시 <u>한 사람</u>도 보이지 않아 몹시 놀랐다.

(40) ㄱ. <u>어떤 사람</u>이 통계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무시당하는 거예요
ㄴ. 이 세상 <u>어떤 사람</u>도 가난한 국가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길 원하진 않습니다.
ㄷ. <u>어떤 사람</u>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반응이 좋다 그러면 속에 있는 얘기가 다 나갑니다

40) 텍스트 내 ‘어떤’의 빈도수를 조사한 장미라(2018:494)에서도 ‘어떤’은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ㄹ. 한 사람을 좋아하면 조금 오랫동안 깊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ㅁ.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데는 도덕적인 결함을 긁어대는 것보다 좋은 게 없지

4장의 예시들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점은,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조건문, 비교 표현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이러한 용례들을 분석하여, 불특정적으로 쓰인 '어떤'과 '한' 명사구의 분포 제약과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분포 제약에서는 4장과 마찬가지로 조사, 지시관형사와의 관계를 다룬다. 더불어 이를 특정적 용법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4.1.의 가정을 검증한다. 첫째는, 특정적 용법이 불특정적 용법보다 더 적은 분포 제약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는, 특정적 용법 내에서 '어떤'과 '한' 명사구의 분포 차이가, 불특정적 용법의 그것보다 크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이후 의미 기능에서는 4.2.에서 특정적 용법이 지녔던 의도성과 대비하여, 불특정적인 용법에서 나타나는 비의도성과 이에 따른 유형·속성 서술의 기능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5.1. 불특정적 '어떤'과 '한'의 분포 제약

5.1.1. 조사 결합 제약

(41) ㄱ. (어떤/한) 학생이 나를 찾아오면, 우선 그 학생에게 사탕을 준다.
ㄴ.*(어떤/한) 학생은 나를 찾아오면, 우선 그 학생에게 사탕을 준다.

불특정적 용법의 경우, 조사 결합 제약이 특정적 용법보다 강하다. 위의 (41)에서, 명사구는 조건절의 영향으로 모두 불특정적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대조나 화제 표지 '은/는'은 사용하지 못한다. 특정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불특정적 용법도 기본적으로는 비한정적이기에 한정성을 함의하는 화제 표지와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적 용법과 달리, 대조초점 표지로서의 '은/는'도 사용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4.1.1.에서 이미 다루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조 표지는 대안집합을 가정하기에 화자는 그 속에 포함된 개체나 부분집합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조초점이 부여된 개체는 자연스럽게 특정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불특정적 용법으로 쓰인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등장할 때 격표지로는 생략을 제외하면 초점표지 '이/가'만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제 말뭉치 용례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가	은/는
어떤-N	10	0
한-N	8	0

[표 8] '일상 대화 말뭉치'의 조사 별 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이/가	은/는
어떤-N	61	0
한-N	36	0

[표 9] '구어말뭉치'의 조사 별 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 빈도

[표 8-9]에서, 보조사 '-은/는'이 결합한 경우에는, 불특정적 용례가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 명사구에 비해 '어떤' 명사구의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은데, 이는 동일한 '명사구+이/가' 조합에서 특정적 용법이 10개 내외의 적은 차이만을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아직은 용례 수가 적고, 여러 번의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만큼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조 초점 표지 '-은/는'이 불특정적 용법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결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용례에서, '-이/가'가 결합한 명사구는 문학과 같은 가상 세계나, 조건문 같이 가정(假定)된 상황 내의 개체를 가리킬 때 주로 나타났다. (42)는 그러한 용례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42) ㄱ. 즉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논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답안에 90-95프로가 대다수가 똑같습니다.
ㄴ. 어떤 사람이 덫을 놓아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호랑이는 성을 내며 발목을 자르고 달아났습니다.
ㄷ.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한 사람이 온전한 그 자신이 되는 이야기예요.
ㄹ. 만약에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매크로를 사용하면 겨우 세 개 찍고 끝나는 거죠.

5.1.2. 지시관형사 결합 제약

불특정적 용법의 경우, 지시관형사 '이, 저'와의 결합은 말뭉치 용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만이 드물지만 제한적인 환경에서 나타났는데, 아래 (43)에 이를 제시하였다. (43ㄱ,ㄴ) 모두 명사구가 지시사 '그', '어떤-N', 조사 '-보다'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구성은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칭 표현을 이루고 있다. 한편 (44)는 이와 비슷한 문법적 구성을 지닌 명사구를 포함한 문장들이다. 이 역시 전칭으로 해석되는 점은 동일하다.

(43) ㄱ. 나한텐 아직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아버지야.
ㄴ. 나린 제가 보아왔던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44) ㄱ. 그 (어떤/*한) 학생이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ㄴ. 그 (어떤/*한) 책을 읽어도 직접 경험한 것만은 못하다.
ㄷ. 인터넷은 그 (어떤/*한) 수업보다도 재미있다.

이는 비한정 표현 뒤에 조사 '-이나, -이든(지), 지라도' 등이 붙어 관습적으로 쓰인 결과이다. 불특정적 용법은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수식받는 명사와 같은 유형에 속하거나 그 속성을 가진 것 모두를 막연하게 이를 수 있다. 더불어 위의 조사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선택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특정적인 비한정 표

현과 결합할 경우 전칭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후 불특정적 ‘어떤’ 앞에는 ‘그’가 결합하여 명사구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지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특정적 용법에서의 지시관형사와는 달리, 이 경우는 ‘그’가 지시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44)에서 볼 수 있듯 ‘한’ 명사구는 ‘어떤’ 명사구와 교체되어 쓰이지 못해, 사실상 불특정적 용법에서는 지시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이는 다른 지시관형사나 비한정 표지의 영향 때문은 아니다. 일례로, 아래의 (45)은 (44ㄱ)애서 지시관형사 ‘그’ 만을 제거한 문장이다. ‘그’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한’이 쓰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5) <u>(어떤/*한) 학생</u>이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결국 이를 통해 ‘한’ 명사구가 ‘-이든’과 같은 표현과 결합하게 될 경우, 불특정적인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은 다양한 경우에 그 불특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는 5.2.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과 ‘한’의 기원에서 발생하는 기능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은 의문사에서 발달하여 속성이나 유형에 대한 지시를 기본 의미로 하지만, ‘한’은 단수 수량 표현에서 발달하여 어떤 개체의 유일한 존재에 대한 지시를 기본 의미로 한다. 따라서 막연한 대상을 나타내는 데에 더 유리한 표현은 ‘어떤’ 쪽이 된다.

정리하면, 5.1.에서 조사 결합 제약과 지시관형사 결합 제약은 불특정적 용법이 특정적 용법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조 초점의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지 못하며, 지시관형사 또한 몇몇 특수한 연어 구성에서 ‘그’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적 용법이 불특정적 용법보다 더 적은 분포 제약을 지닐 것이라는 가정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시관형사 결합 제약에서는 ‘한’은 ‘어떤’과 달리 결합 대상이 되지 못하였는데, ‘어떤/한’ 명사구 모두 지시관형사와 결합할 수 있는 특정적 용법과의 차이이다. 즉 불특정적 용법에서 ‘어떤’과 ‘한’ 명사구의 분포 차이가 더 클 것이라는 가정 또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이는 5.2.에서도 지적될 것이다.

5.2. 불특정적 ‘어떤’과 ‘한’의 의미 기능

5.2.1. 비의도성

4.2.1.에서는 [안밝힘]과 [불분명]이라는 의미 기능에 기반하여, 특정적 용법의 특징으로 [+의도성]을 제시하였다. 화자가 지시 대상의 실체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거나 일부러 숨길 필요가 있을 때 특정적 쓰임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불특정적 용법은 [막연함]을 기반으로 하기에 [-의도성], 즉 비의도성을 지닌다. 이는 불특정적 명사구의 사용이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상정하지 않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구체적인 지시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대상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불특정적 명사구는 특정적 명사구와는 반대로 막연한 대상을 지시하는게 된다.[41)]

즉 ‘어떤/한’ 명사구의 불특정적 용법은 명확한 실체를 알 수 없는 대상이나, 어떠한 속성이나 유형을 가진 개체들의 집합 자체를 지시한다. [모름]의 의미 자질이 비한정성의 핵심임을 떠올려보면, 불특정적 용법의 [막연함]은 비한정 표현의 무표적 쓰임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지시 대상의 실체를 모르거나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을 때, 비한정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속성이나 유형과 같은 보편적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특정적 용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4.2.1.과 같이 [의도성]의 정도에 따라 용례를 범주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불특정적 용법을 지닌 용례들은 막연한 대상을 설정한다는 공통의 기능만 지닌다. 둘째는, 지시 대상을 가정(假定)해야 할 때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정은 어떤 대상을 특정적으로 지시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나타난다. 필연적으로, 불특정적 용법은 대상을 가정하여 서술해야 하는 문장 부류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용례는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최상급 비교문, 조건문, 추측문이 두드러지므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41) 이는 Gundel et al.(1993)에서 주어짐성 위계의 가장 낮은 단계로 지적한 ‘유형 확인 가능(type identifiable)’과 유사하다.

먼저, 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가 최상급 비교 표현에 쓰인 경우를 제시하였다.

(46) ㄱ. 나는 (어떤/*한) 사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
ㄴ. 영화는 (어떤/*한) 책보다 재미있다.
ㄷ. (어떤/*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할 수 있어.

비한정 표현의 연어 구성 중에서는 (46ㄱ,ㄴ)처럼 ‘-보다’가 결합한 비교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으나, 이는 막연한 사람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용법에서 도출된다.(이규호,2017:166) 비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지시 가능한 대상들의 집합 내에서 선택 가능한 대상 전체를 지시하게 된 것이다. 즉 해당 명사구를 보편적인 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최상급의 비교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46ㄷ)은 비교표현은 아니나, (46ㄱ,ㄴ)과 같이 어떠한 유형이나 속성을 가진 대상 전체를 지시함으로써 전칭 표현이 되었으므로 참고할만하다. 두 경우 모두 결국은 보편적, 전칭적 표현이기에 특정 지시체를 상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특정적인 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48)에서 ‘한’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쓰임을 보이지 못하는데, 이는 그것이 지닌 단수적 속성으로 인해 대상 전체를 지시하는 데에 제한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조건문에서 조건절 내에 있는 ‘어떤/한’ 명사구는 대부분 불특정적으로 해석된다.

(47) ㄱ. 짐이 만약 어떤 장군에게 바다의 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ㄴ.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어떤 꽃을 사랑한다면,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감미로울 거야.
ㄷ.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웃는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ㄹ. 한 쓰레기가 길에 놓여 있으면, 곧 그 거리는 더러워진다.

(47ㄱ-ㄹ)은 모두 조건절에서 '어떤/한' 명사구가 불특정적인 해석을 받는 경우이다. 조건절에서 비한정 표현을 사용할 때는, 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자가 경험적으로 그 실체를 알고 있는 지시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불특정적인 해석을 받는 명사구가 자주 나타난다. 물론 화자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또는 그럴 필요가 없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조건문을 사용한다면, 조건절 내에 있더라도 특정적 해석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다음 문장은, 조건절 내의 '어떤 사람'이 특정적, 불특정적 해석을 모두 지닐 수 있다.

(48) 내가 (어떤/한) 사람한테 지금 전화하면, 그 사람은 바로 와 줄 거야.

(48)에서 화자는 '어떤 사람'에 대해, 특정한 인물을 마음속에 표상할 수 있다. 이때 문장은 한 개체에 관한 조건문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불특정적으로 해석된다면 '어떤 사람'은 '사람' 유형에 속하는 개체들의 집합을 이르게 된다. 따라서 문장은 그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해도 모두들 올 것이라는 보편적 진술로 해석된다. 이처럼 조건절 내에서 불특정적 '어떤/한'의 사용은 보편적 진술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한 사람'의 경우는 불특정적인 해석이 상대적으로 어색할 수 있어, 특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추측문에서도 불특정적 용법이 자주 나타난다.

(49) ㄱ. 그러고 보니 내일은 영희가 어떤 수업이 있겠구나.
ㄴ. 어떤 사람이 내 빵을 먹었나 봐.
ㄷ. ?그러고 보니 내일은 영희가 한 수업이 있겠구나.
ㄹ. ?한 사람이 내 빵을 먹었나 봐.

(49ㄱ-ㄹ)은 추측 표지 '-겠-'이나 '-나 보-'을 사용하여, 화자가 이미 벌어진 사건이나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 추측하는 문장이다. (49ㄱ,ㄴ)

에서 수업이나 대상은 화자가 그 존재를 예측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실체를 마음속에 표상하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추측이란, 화자가 그 명제가 참임을 청자에게 보장하지 못하고, 화자 자신 또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측된 상황 내의 비한정적 개체는 본질적으로 불특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또한 (48)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특정한 수업이나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특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49ㄱ)에서 화자가 영희의 수업 시간표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내일 어떤 수업이 있는지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시 대상의 정체를 파악할 만한 특수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추측문 내의 '어떤/한' 명사구는 불특정성을 띨 것이라 짐작된다. 반면 (49ㄷ,ㄹ)은, '한' 명사구가 불특정적이라고 가정할 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오히려 특정적이거나 수사적 쓰임이 강조된[42] 문맥에서 자연스러울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조건 설정, 추측처럼 대상이나 상황을 가정해야 할 때나 최상급 비교 표현처럼 보편적인 대상을 지시해야 할 때, 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의 쓰임은 활발해진다. 이 경우 화자는 보통 마음속에 특정한 지시체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함]을 기반으로 하는 불특정적 용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자의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특정적 용법과 달리, 불특정적 용법은 화자의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비의도적이다. 다만 '한'은 '어떤'에 비해 불특정적인 쓰임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 상대적으로 특정성이 강한(혹은 불특정성이 약한) 비한정 표지로 볼 여지가 있다.

5.2.2. 유형·속성의 서술

앞서 4.2.2.에서는, 특정적 용법의 주요 기능을 화자의 직접적, 간접적 경험에 대한 서술로 보았다. 이를 위해 경험 관련 종결어미와의 특정적 용법의 명사구가 공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불특정적 '어떤/한' 명사구는 화자

42) 이 경우 내일 영희가 들을 수업의 수나 빵을 먹은 사람의 수가 중심 내용이 된다.

가 경험한 바가 없는 새로운 개체, 또는 막연하고 보편적인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관련 종결어미들과 공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외를 보이는 용례들이 있다.

(50) ㄱ. 영희는 내일 (어떤/한) 물건을 (산다더라 / 살 거라더라).
ㄴ. 영희는 곧 (어떤/한) 대학에 가겠더라.

(50ㄱ,ㄴ)의 '어떤' 명사구는 특정적, 불특정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는 예외적으로, (50ㄱ,ㄴ)가 미래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이다. '-더라, -다더라'에 시제표지 '-ㄴ, -ㄹ것, -겠-'이 결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50)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하는 문장들로, 과거 경험 내용이 부재한 상태이다. 달리 말하면, 화자가 경험 영역을 통해 지시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불특정적으로 해석되며, 맥락을 통해 정보가 더 주어질 경우 특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0ㄱ)에서 화자가 영희가 살 물건의 목록을 어디선가 미리 전해 들었거나, 친분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면 특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화자의 경험 영역 내 개체에는 보통 특정성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경험 서술을 불특정적 용법의 주요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적 용법과 달리, 불특정적 용법은 명사구의 유형이나 속성을 서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Gundel et al.(1993)에서 가장 낮은 주어짐성의 단계로 제시된 것처럼, 청자와 화자는 언급된 명사구에 대해 구체적인 개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속성이나 유형을 표상(type representation)하기도 한다. 불특정적 용법의 경우, 화자는 이러한 보편적인 개체를 염두에 둔 발화를 하게 된다. 다음 문장을 보자.

(51) 철수의 살인범은 (어떤/한) 남자이다.

(51)에서 '어떤 남자'는 특정적/불특정적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 특정적이라면 화자가 어떤 특정한 살인범을 내부에 표상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대로 불특정적이라면, 철수의 살인범이 남자라는 사실만 알 뿐, 지시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여기서 '어떤 남자'의 역할은, 철수의 살인범을 전체 사람의 집합에서 '남성' 속성을 지닌 개체들의 집합으로 좁히는 것이지, 지시 대상이 될 개체를 따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명사구가 불특정적 용법으로 해석될 때에는 속성적 사용만이 가능할 뿐, 동일지시적 사용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과 '한'이 유형이나 속성을 서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어떤'의 경우는,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려는 성질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 '어떤' 의문은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질문 대상의 특성에 대해 묻는 역할을 하여(정연주,2020:18), 후행하는 명사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시하는 것이 본래 의미이다. (양명희,2005:264) 다음 대화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52) A : 너는 <u>어떤 동물</u>을 좋아해?
B : ?나는 영희네 개를 좋아해.
C : 나는 고양이가 좋더라.

(52)에서, B의 발화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어떤' 의문이 요구하는 답으로는 특정한 개체보다 유형·속성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B의 경우는 '영희네 개'라는 특정한 개체로 답을 하고 있기에, 적절한 답으로 여기기 어렵다.[43] 반면 A의 질문에 대해 좋아하는 동물의 부류/속성으로 답을 한 C의 발화는 적절하다. 따라서 비한정 표지 '어떤' 명사구가 유형이나 속성을 서술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의문사적 쓰임이 확장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한'은 원래의 수사적 쓰임에서 유형이나 속성 서술의 기능을 찾기가 어렵다. 단수 표현은 수식하는 명사구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체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의미로, 존재 전제를 불러일으키므로, 해당 유형이나 속성을 지닌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특정한 개체를 상정한 표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쓰일 수 있으나, 속성이나 유형

43) 다만 '영희네 개'가 특정한 한 개체가 아니라, 영희네 집에 사는 어떤 개의 부류를 지시하는 것이었다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

과 같은 보편적 지시에서는 제한적으로 쓰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적인 ‘한’의 용법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비한정 표지로서 ‘어떤’과 동의어처럼 교체되어 쓰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이 지닌 유형이나 속성의 서술 기능이 ‘한’에도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본고는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용례를 분석하여, 그 지시적 정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것을 밝히고, 그 특정적/불특정적 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했다.

2장에서는 기본적 논의로서 한정성, 특정성 개념을 정의하였다. 한정성의 조건은, 화자가 청자는 지시체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었다. 즉 청자와 화자 모두의 앎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특정성의 조건은, 화자가 지시체에 대응하는 개체를 마음속에서 표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어떤’과 ‘한’이 비한정성을 부여하는 비한정 표지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비한정 표지의 특성을 분석하여, 특정 명사류의 결합이나 표지 연쇄 제약이라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후 4-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비한정 표지 ‘어떤’과 ‘한’의 특정적, 불특정적 용법에서 나타나는 분포적, 의미적 특성들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설정하였던 연구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① 각 용법 사이에 서로 다른 문법적 선호나 제약이 발생하는가?

특정적 용법과 불특정적 용법 사이에, 조사 제약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정적 용법은 초점표지 ‘이/가’와 대조초점의 ‘은/는’이 결합할 수 있었으나, 불특정적 용법에서는 초점표지 ‘이/가’만 결합하였다. 또한 지시관형사의 결합에서도 두 용법은 차이를 보였다. 특정적 용법의 경우 ‘이, 그, 저’가 결합한 형태가 모두 나타났으며, 해당 지시관형사들의 지시성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불특정적 용법에서는, ‘그’만 선행할 수 있었다. 이는 제한적인 조사들과만 공기할 수 있는 관습적인 구조로, 전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 구성이 되었다. 또한 불특정적 ‘한’ 명사구는 ‘어떤’ 명사구와 달리 지시관형사와 결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적 용법은 특정적 용법에 비해 더 강한 분포 제약을 지니며, ‘한’ 명사구에 대한 제약도 불특정적 용

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② 각 용법의 주요 의미 기능은 무엇인가?

특정성과 불특정성의 의미 기능은 비한정성의 의미 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우선 특정적 용법은 비한정성의 [안밝힘], [불분명] 기능에 기반하여, [+의도성]을 보였다. 화자는 지시된 대상과 관련된 경험을 지녀, 그 실체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긴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경험 영역에 있는 개체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주로 경험 서술의 기능을 했다. 반면 불특정적 용법은 화자도 잘 알지 못하는 막연하고 보편적인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비한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도적이지 않고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의도성]을 지니며, 속성이나 유형에 대한 지시를 담당하였다.

③ 비한정 표지로서 '어떤'과 '한'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은 특정적/불특정적 용법 모두에서 어느 경우에나 제약 없이 사용된다. 그러나 비한정 표지로서 '한'은 '어떤'보다 분포나 용법상의 제약이 크다. 우선 분포에서는 지시관형사가 선행할 경우, 비한정 표지로 쓰이지 못하고 수관형사로만 쓰이게 된다. 이는 지시성이 강한 표현과 공기할 때, '한'의 지시성이 매우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자체는, 비한정 표지로서 다소 불안한 지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특정적 용법에서는 '한' 명사구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 용례들이 많아, '한'은 특정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비한정 표지로서 '어떤'과 '한'이 지니는 지시성과 그 의미기능에 주목하였기에, 용례들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관찰 수준으로만 기술하였다.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심도 깊게 나아가지 못하여,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게 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김대빈(1992), *The Specificity/Non-Specificity Distinction and Scrambling Theor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김대빈(1994), “비특정성”, 《언어》 19-2, 한국언어학회, 343-359.

김민국(2010), “수관형사 ‘한’의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문학회, 27-52.

김영희(2006), 《한국어 셈숱화 구문의 통사론》, 한국학술정보.

김천학, 안혜정(2021), “관형사 ‘한’과 지시어 ‘이, 그, 저’의 쓰임을 통한 화·청자와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 《한국어학》 93, 한국어학회, 171-197.

김충효(2000), 《국어의 의문사와 부정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김혜진(2023), “문두 비한정명사구 구문과 유(有)-구문의 정보구조 비교연구”, 《중어중문학》 92, 한국중어중문학회, 157-187.

남기심, 고영근(2014), 《표준국어문법론(제4판)》, 도서출판 박이정.

민경모(2005),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한국어 원어텍스트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1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1-98.

박기선(2011), “‘어느’와 ‘어떤’의 사용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149-180.

박병선(2004), “한국어 지시관형사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28, 언어과학회, 61-78.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115-147.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도서출판 역락.

박철우(2012), “양화 표현과 의미; 양화사와 의미”, 《한국어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1-23.

서중운(2022), “한국어 한정성 범주의 실현 방법”, 《어문총론》 91, 한국문학언어학회, 37-72.

양명희(2005), “국어 부정칭의 의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

학사, 252-269.
양용준(2013), “영어와 한국어의 한정사에 관한 비교분석”, 《영어영문학》 18-2, 미래영어영문학회, 145-165.
염재일(2007), “두 특정성 표지 ‘어떤’과 ‘한’에 대한 고찰”, 《언어와 정보》 11-2, 23-47.
우순조(1991), “특정성의 비특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어연구》 3,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67-80.
유현경(2008), “관형사 ‘한’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65-86.
유현경,안예리,양수향(2007), “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조사 ‘가’와 ‘는’의 선택 원리 연구”, 《언어와 정보》11-1, 한국언어정보학회, 1-23.
윤희수, 이선웅(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량사구 연구: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139-171.
이규호(2017), “의문사와 부정사의 의미와 용법”, 《국어학》 82, 국어학회, 153-180.
이운영(1994), “국어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민(1992), “(비) 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초점: 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 《국어학》 22, 국어학회, 397-424.
임홍빈(1988), “'무슨'과 '어떤' -의문에 대하여 : 의문의 통사론과 의미론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79-194.
장미라(2018), “한국어 의문·부정 관형사의 사용 양상과 교육 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 ‘어느’, ‘어떤’, ‘무슨’을 중심으로”, 《어문학》 142, 한국어문학회, 473-504.
장석진(1985), “화용론연구”, 탑출판사.
전영철(2002),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 《언어와 정보》 6-2, 한국언어정보학회, 83-104.
전영철(2005), “한국어의 소위 특정성 표지들에 대하여”, 《언어》 30-4, 한국언어학회, 715-743.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론의 의미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연주(2020), “비한정 표지 설정에 관한 일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49, 한국
어문학국제학술포럼, 7-42.
정재현(1996), “독일어 관사의 한정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와 관련하여”, 《독어독문학》 60, 한국독어독문학회, 373-393.
제경미(2019), “한국어 관형어의 영어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61-181.
주위(2018), “지시관형사에 대한 계량적 분석”, 《한국어교육연구》 13-1, 한국어능력평가원 한국어교육연구소, 127-146.
최정진(2016), “명사구와 관련된 정보구조와 한정성의 상관관계”, 《한국어의미학》 54, 한국어의미학회, 151-173.
채완(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34.
한정한(2017), “한국어 정보구조와 사용역”, 《언어학》 78, 한국언어학회, 63-97.
홍정하(2010), “문법관계와 한정성에 기반한 조사 분류 :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295-318.

Abusch, D.(1993), “The Scope of Indefinit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2-2, 83-135.
Donnellan, K.(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75-3, 281－304.
Fodor, J. & I. Sag (1982), “Referential and Quantificational Indefinit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355－398.
Greenberg, J.(1978), “Generalizations about Numeral Systems,” In J. Greenberg et al. (eds.),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III: Word Structure*, 249-29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with corrections in K. Denning & S. Kemmer (eds.), *On Language: Selected Writings of Joseph H. Greenberg* 271-309.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Gundel J., N. Hedberg and R. Zacharski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

274-307.
Haspelmath, M.(1997), *Indefinite pronouns*, Oxford : Clarendon Press.
Heim, I. R.(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Heine, B.(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Ioup, G.(1977). "Specific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Quantifi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233-245.
Karttunen, L.(1976), "Discourse Referents," In J. McCawley (ed.) *Syntax and Semantics 7*, New York: Academic Press.
Lyons, C. (1999), *Defin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ince, E. F.(1981). "Towards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NY: Academic Press, 223-233.
Wright S. & T. Givón (1987), "The Pragmatics of Indefinite Reference: Quantified Text-based Studies", *Studies in Language* 11-1, 1-33.

■ 분석 텍스트

Antoine de Saint-Exupery(1943), *The Little Prince*, (K. Woods,Trans.), Everyman's Library. (Original work published 1943)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2019), ≪어린왕자≫, (민현식,역), 문학의문학. (원본 출판 1943년)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2007), ≪어린왕자≫, (김화영,역), 문학동네. (원본 출판 1943년)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2006), ≪어린왕자≫, (이효숙,역), 문학의문학. (원본 출판 1943년)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1982), ≪어린왕자≫, (전성자,역), 문학의문학. (원본 출판 1943년)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20 (버전 1.3)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 (버전 1.2)

■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abstract〉

Reference of Korean Indefinite Marker *Etten* and *Han*

Kim Eunb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observe the usage of the indefinite markers *etten* (어떤) and *han*(한) in Korean, focusing on their distributional and semantic features, and to reveal their reference in detail.

Until now, the claim that the noun phrases *etten* and *han* are always infinite has been generally accepted.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se previous studies have been that they only focused on specific usage. The non-specific usage has been presented merely as counterexamples, and no attempt has been made to typify said usage.

Therefore, in order to show the reference of *etten* and *ha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definiteness, specificity, and non-specificity together. To this end, this paper will verify that both words are indefinite markers, and divide their uses into specific and non-specific parts. The analysis will focus on what grammatical preferences and constraints each part has, and how they differ in key semantic functions.

Before proceeding into the analysis, Chapter 2 attempts to define

definiteness and specificity. In previous works, their definitions tended to vary depending on the researcher, thus several discussions have been reviewed and compared before selecting the theory to apply to this paper. Here, definiteness is defined as the speaker's and listener's recognition of the referent, following the identifiability theory, while specificity is defined as when the listener has an internal representation of the referent, following the identification theory.

Chapter 3 proves that *etten* and *han* are indefinite markers. The characteristics of indefinite markers are that they give non-finiteness to noun phrases, are restricted conjunction with some attributive nouns, and have difficulty chaining with definite markers. *Etten* and *han* fulfill all of these conditions, and even when checked with definiteness effects and unusual uses, stay indefinite consistently.

Chapters 4 and 5, discuss the distributional and semantic features of specific and non-specific usage through analysis of the Korean corpus. In regards to distributional features, postpositions and demonstrative prenouns reported different constraints. In the case of postpositions, the specific usage could be combined with the focus markers '*i/ka*(이/가)' and contrastive markers '*un/nun*(은/는)'. In contrast, the non-specific usage could only be combined with the focus marker *i/ka*. For demonstrative prenouns, the specific usage could be tied with *i*(이), *gu* (그), and *je*(저) and reference of those was preserved. However, for the non-specific usage, only *gu* was allowed. In summary, the non-specific usage had a stricter distributional constraint than the specific one.

Furthermore, the main semantic functions of each usage differed as well. In the specific usage, the speaker's own experience with the referent was related to the usage, and the speaker's intent to conceal the experience was strongly involved. In contrast, the non-specific usage did not show such intentions, and was used to refer to properties or

types.

Meanwhil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etten* and *han* as well. *Han* was used more restrictively than *etten*, especially in non-specific usage.

keywords : etten(어떤), han(한), indefinite marker, indefiniteness, specificity, non-specificity

Student Number : 2021-23167